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0월 14일 (토) 제 165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라스베이거스 총격 후 성경에서 위로를 찾다!

#### CT, 바이블게이트웨이 접속분석 통해 미국인들이 많이 찾은 성경말씀 보도

59명이 사망했고 최소한 500여명이 부상당한 라스베이거스 컨트리뮤직 페스티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과 슬픔에 잠긴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를 전했다. "성경은 주님께서 상심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하시며 영혼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며, 대통령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인용했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미국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만든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다음 날, 많은 성경 독자들은 대통령이 인용한 시편 말씀으로 아직까지도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 크리스천티비투데이(CT)는 이처럼 라스베이거스 대량살상 후 많은 미국인들이 성경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바이블게이트웨이의 분석들을 언급하면서 보도한다(After Mass Shootings, Americans Turn to Four Bible Verses Most: President Trump, Louie Giglio, Christine Caine, and David Platt all cite top psalm after Las Vegas attack).

바이블게이트웨이는 이번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총격사건을 포함해서 지난 10년 동안 총기를 통한 대량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날 때 미국인들은 성경에서 위로를 찾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벌어진 총기 통한 살상 사건들 중 10명 이상이 살해된 사건들이다:

- ▲2007.4.16=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텍에서 한인 학생 조승희가 33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 ▲2009.3.10=앨라배마 주 제네바 카운티와 커피 카운티에서 28세 실직남성이 총을 쏘 10명 살해.
- ▲2009.4.3=뉴욕 주 빙햄튼의 이민자 서비스 센터에 베트남계 이민자 지벌리 원이 총기를 난사해 13명 사망.
- ▲2009.11.5=텍사스 주 포트워드 군사기지에서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사해 장병 12명 등 13명 사망.
- ▲2012.7.20=콜로라도 주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조커'를 흉내 낸 범인이 총기를 난사해 관객 12명 사망, 70여 명 부상.
- ▲2012.12.14=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아동 20명과 교직원 6명 사망.
- ▲2013.9.16=워싱턴DC 해군 복합단지(네이비아드)의 사령부 건물에서 군 하청업체 직원이 총기를 난사, 범인을 포함해 13명 사망.
- ▲2015.6.17=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 달린 루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을 난사해 흑인 교



최근 10년래 미국내 최대 사망자를 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미국인들은 성경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인 9명 사망.

- ▲2015.10.1=오리건 주 소도시 로즈버그의 엄프와 칼리지에서 20대 남성이 교회에 총기를 난사해 10명 사망, 7명 부상.
- ▲2015.12.2=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 시의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4명 사망, 22명 부상.
- ▲2016.6.12=플로리다 주 올랜드 나이 트클럽에서 총격과 인질극 발생해 50여 명이 숨지고 최소 53명 부상-허핑턴 포스트.

따라서 위에 열거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연중 1억5천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바

이블게이트웨이 사이트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성경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러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3면으로 계속)

###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전하는 리더!

#### 리더십저널, 앤 보스캠프가 전하는 리더 모습 소개

"이런 상처 따윈, 나에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입에서만 맴도는 마음의 질문이 있다.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용서는 약자들의 변명일 뿐이지." "민음이 무슨 소용이람! 저런 인간들이 버젓이 잘 먹고 잘사는데..."

현실을 설명하기엔 신학은 너무나 빈틈이 많고, 기도는 주문처럼 허전하다.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인생의 상처와 부서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마저도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자기 잘못에서 비롯한 삶의 무게도 상당하다. 복음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것 같다가도 살짝 던져진 돌 하나에 마음에는 큰 파문이 있다. 크고 작은 상처는 마치 연자 맷돌처럼 내 삶을 끊임없이 가라앉게 한다. 내 인생 하나 감당하기도 이리 버거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듣고 실천하던 말인가!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는 걸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더가 섬겨야 하는 영혼은 예외 없이 마음의 깨어짐과 상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향해 리더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여류 작가인 앤 보스캠프(Ann Voskamp, www.aholyexperience.com)는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은혜를 포착해내는 탁월한 재주를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그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섬세하게 헤아리는 삶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면서, 상처나 깨어짐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 '깨어짐과 상한 마음 안고 사는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이 겪고 있거나 겪었던,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깨어짐을, 예수님을 닮은 연민으로 민감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깨어짐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정신병원 옆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한 마디로 시작하는 농담 섞인 설교를 들던 한 여인이 있었다. 회중이 웃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고개를 떨구며 정신병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가족이 생각났다. 세상이 전혀 모를 고통과 상처에 끝까지 함께해주시는 분이 계신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p>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최해근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선교의 향 송종록 목사



본사방문 박덕주 권사

# 신유 축복강화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행4:30-

**일시: 2017. 10. 19(목) ~ 22(주일)**

19(목) 7:30PM  
20(금) 5:30AM/7:30PM  
21(토) 6:00AM/7:30PM  
22(주일)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저녁 6:3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장향희 목사(일산튼튼한 교회 담임)**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ISTV 미국지역 CH 688(DISHNET)	오전 10:00(주 일)
CHTV CH 18.7	오후 12:00(주 일)
CGNTV LA 지역	오후 02:30(월요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CHTV CH 18.7	오전 04:30(월요일)
크리스천 에펠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CTS 미국(DIRECT TV) CH 2092	오후 05: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ISTV 미국지역 CH 688	오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미국(DIRECT 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TS 한국(교)	오전 05:00(한국시간)
SCA FM	오전 00:00(토요일)
라디오 서울 1650	오전 09:00(토요일)
	오전 00:00(토요일)

주일에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683





# 시론

## 기독교와 무속(巫俗)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9월 25일 한국에서 무속인들의 모임인 대한경신연합회가 남산 팔각정에서 무부절(巫巫節) 선포식을 열고, 무교를 민족종교로서 제도권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무교인(무속인)의 숫자가 적게는 30만, 많게는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양의 숫자인 9가 둘 겹치는 음력 9월 9일 중앙절을 자신들의 신앙에서 길일(吉日)로 인정하고 음력으로 이날을 지키는 대신 양력 9월 중

의 하루를 '무부절(巫巫節)'로 지키는데, 바로 그날이 9월 19일이다. 이들은 무교를 더 이상 미신이 아닌 민족종교로 제도권 속에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무속인들이 좀 더 품위 있는 행동으로써 일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무교(巫教)가 한민족의 전통적인 종교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기독교층으로부터 혹세무민(惑世誣民) 세력으로 몰려 어려움을 겪었고 개화기에는 일제로부터 탄압 받다가 근래에는 서양문물과 함께 유입된 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무교(巫教)가 더 이상 하나의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 미신으로 오해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보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데 바로 세계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수많은 핍박과 환란의 시기를 지나왔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가진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인하게 움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그 환란을 극복함으로써 진리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속성 가운데 하나인 '진리의 생명력이 기독교를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이다.'

탄압을 통해 사라지거나 시들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 혹은 이론이 진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검증되기 마련이다.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 없어지거나 무기력해진다던 그것은 결코 창조주에게서부터 온 진리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진리는 핍박 속에서 그 진리 됨을 스스로의 열매와 건강한 생존을 통해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증명해 왔다. 진리는 마치 오희처럼 아무리 밟아도 눌러도 짓이겨도 다시금 그 자리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싱싱한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히11:35-37). 이런 외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는 더 강하게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인 고난으로 인해 진리가 미신으로 추락하거나 변질될 수는 없다. 만일 미신으로 변질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미신이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전통 속에 깊이 묻어있고 숨어있는 무속적인 면은 우리 문화에서만 아니라 남미의 아즈텍, 마야 그리고 잉카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남미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도 한결 같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을 '무교'(巫教)라는 한 종교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모든 문명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무속적인 혹은 미신적인 면인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본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살름.

thec'hoi82@yahoo.com

# 루터의 '9월 성경', 세상 뒤흔든 "소통의 혁명!"

### CH,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어 성경번역' 통해 진리 확산하게 됐다고 해석

독일 동부 아이제나흐(Eisenach) 남쪽 바위산 위에 우뚝 솟은 바르트부르크 성(城)이 있다. 산꼭대기에 지어진 이 요새 같은 성에서 루터는 북향쪽 작은 방에 10개월간 머무르면서 11주 만에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완성했다. 1521년 9월에 완성됐다 해서 '9월성서'로 불리는 책이다. 쫓기는 몸, 고립된 상황, 루터는 이 방에서 마귀(사탄)의 환영을 받고 잉크병을 던져 쫓아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나는 잉크로 마귀와 싸웠다"고 했다. 그렇게 완성된 '9월성서'는 루터의 평생의 무기였다. 문맹률이 95%에 이르던 시절, 사제들이 읽어주는 라틴어 성서는 일반 신자들에게 이해 불가능한 외계어나 같았다. 루터는 그들에게 모국어 성경을 선물했다. 당시 소한 마리 값에 육박했다는 '9월 성경'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종교개혁의 불길도 확산했다. 성경을 읽은 독자들은 루터의 강력한 우군이 됐다. 루터는 한마디로, 독일어 성경 번역을 통해 세상을 뒤흔들어 버렸다. 라틴어로 독점하는 종교적 권위와 권력의 교황 체제에 성경번역을 통해 "소통

의 혁명"을 일으켜, 유럽의 교육 전통과 교회 전통을 변혁하는 힘이 된 것이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 자매지 '크리스천스토리(CH)'는 모든 권력과 권위를 독점한 로마 교황청에 성경번역을 통해 세상을 뒤흔들어버린 루터의 또 다른 저항(protestant)을 분명하게 보여준다(The Bible Translation That Rocked the World: Luther's Bible introduced mass media, unified a nation, and set the standard for future translations).

이번 호에는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 산하 온라인 매거진 '9Marks(www.9marks.org)'이 종교개혁500주년 특집(The Reformation and Your Church : Fall 2017)으로 보도한 기고문 중 엄선된 두 번째 원고다. ▲10/21: The Reformation's Restoration of the Sacraments, Bobby Jamieson ▲10/28: Four Ways the Reformation Changed Church History, Alex Duke.

마르틴 루터는 실로 다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설교가이자 교사였으며 웅변가였고 번역가였다. 또한 신학자였고 작곡가였으며, 지극히 가정적인 가장이기도 했다. 그는 유럽 종교개혁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루터가 이런 가장 큰 업적은 누가 뭐라 해도 그가 옮긴 독일어 성경일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 책만큼 한 나라의 발전과 정신적 유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 독일어는 여러 지역 방언으로 이뤄져 있었다(합스부르크-룩셈부르크 제국의 황제들이 궁정에서 펠소 사용하던 말이 이런 독일어였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이 방언들이 어떻게 하나의 근대 언어로 통합됐던 것일까?

거기에는 중산 계층의 등장과 무역의 증대, 그리고 인쇄 기술의 발달도 한 몫씩 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루터의 성경이었다. □



아이제나흐에 있는 루터 상 역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상보다 특이하다. 성경을 들고 있는 루터 밑에 바르트부르크 성 작은 방에서 성경번역을 하는 루터가 각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회에 합류해 선례를 만든 덕분이라고 보면 된다. 이 위원회의 학문성에 필적할 만한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루터는 번역의 최고 책임을 맡았다. 그는 산헤드린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을 이끌며 번역을 진행했는데,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는 학문적이거나 문어체가 아니라 독일 말을 생생하게 살린 번역을 원했다. 어떤 단어나 구절이든 옮겨 적기 전에는 반드시 루터의 눈이 아닌 귀부터 통과해야 했다. 들었을 때 거슬리지 않고 잘 이해돼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어 성경이 가진 가장 최고의 자산인데, 이것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문자 하나하나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석하려 했던 루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외국어의 표현을 모국어로 온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절한 번역 방법론은 원서의 어법에 따라 가장 잘 어

## 도피처서 11주만에 독어성경 완성, 출간 2달만에 5천부 팔려 인쇄술과 더불어 유럽의 교육과 교회 전통 변혁 토대 마련

Cranach)의 작품과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의 저 유명한 요한계시록 연작에서 채택한 목판화가 들어간 이 성경은 '9월의 성서'(September Bible)로 불리며 출간 후 두 달 만에 5000부가 팔려나갔다.

그러자 루터는 구약 성경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모두 배운 루터였지만, 혼자서 성경을 번역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번역가는 절대로 혼자 일해서는 안 된다. 혼자 번역을 하면 적절한 최상의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루터는 '산헤드린'이라고 명명한 번역위원회를 꾸렸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위

원회라는 개념은 필립 멜란히톤(Philipp Melancthon), 유스투스 요나스(Justus Jonas), 요하네스 부겐하겐(John Bugenhagen), 카스파르 크루시거(Caspar Cruciger) 같은 학자들이 루터가 만든 번역위원

우리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외국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말의 표현이 되게 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편집국장: 유원정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대 표) (323) 665-9025(광고국) Fax: (323) 665-0056(편집국) (323) 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대표) (718) 886-4424(편집국) Fax: (718) 886-0074(대표) E-mail: nycc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라스베이거스 충격 후 성경에서 위로를 찾다

(1면에서 계속)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시편 11편 5절 “여호와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 도다.”

특별히 시편 말씀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며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는 말씀들로, 크리스천들이 좌절과 애픔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 애틀랜타 패션시 티교회 담임 루이 지글리오(Pastor Louie Giglio) 목사와 반 인신매매 근절 단체(A21) 창립자인 케인(Christine Caine) 역시 시편 34편 18절 말씀으로, 라스베이거스 충격 사건 후 충격과 절망에 빠진 교인들과 지지자들을 권면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어(Beth Moore, Living Proof Ministries)는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의심을 감찰하시니라” 말씀으로, 조브(Kari Jobe,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singer and songwriter)는 9편 9절 “여호와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도라”, 그리고 로

츠(Arne Graham Lotz, 빌리 그레이 함 목사 딸이자 AnGel Ministries 창립자)는 23편 4절 “내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시



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전하고 있다.

한편 대량학살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블게이트웨이 사이트에서 종말을 다룬 말씀들을 검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종말을 다룬 말씀들을 찾는다. 예를 들어, 2016년 달라스 경찰 충격 사건 후 한 바이블 검색 사이트(openbible.info)의 탐 주제들은

“폭력”, “종말의 징조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었다고 바이블 검색의 대가 스미스(Stephen Smith)는 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충격을 통한 대량 살상 사건은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점이다.

퓨리서치가 올 초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테러 공격(66%), 폭력 범죄(61%) 그리고 대량살상 사건(38%) 순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백인 주류교단 교인들이나 무종교 백인들도 미국인들 평균 치에 비해 대량 살상 사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30% 정도만이 강력한 총기 규제에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미국들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퓨리서치는 전한

## 루터의 ‘9월 성경’, 세상 뒤흔든 ‘소통의 혁명!’

(2면에서 계속)

나는 시장통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세를 소개하면서 누구도 그를 유대인으로 보지 않도록, 꼭 독일인처럼 만들려고 한다.”

번역자들은 기본 언어로 궁정 언어를 채택했지만 제국의 갖가지 방언들에서 최상의 표현을 찾아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루터는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꼭 맞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각기 다른 방언을 쓰는 노인들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제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푸주한을 데려다 양을 도살해서 그 내장을 연구하기까지 했다.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보석’을 번역할 때는 도대체 그것이 어떤 돌인지 알지 못해 고민이 되자, 선제후의 수집품 중에서 그것과 비슷한 돌을 빌려와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루터는 히브리어 원문을 최대한 독일어답게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말할 수 없이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우리는 선지서를 독일어로 옮기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고 그는 기록했다. “오, 주여. 이 저자(선지자)들이 독일어로 말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요.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포기하고 야만적인 우리 독일어를 따라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지빠귀로 하여금 아름다운 선율을 거두고 경멸해 마지않는 빠꾸기의 재미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읊기 전편에 흐르는 격한 감정을 표현한 말들을 번역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읊은 친구들에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읊기를 번역하려드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번역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재 위에 드러눕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산헤드린은 신속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변증적인 어조로 번역을 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태어난 독일어 성경은 이보다 나중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보다도 문학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다. 또한 이 성경은 읽을 때 뿐 아니라 낭독할 때도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운율과 가독성에서 탁월해 지금까지도 독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어에서는 누구나 ‘루터어 성경’을 산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이 성경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중산층으로서의 위신 때문이라도 그렇

다. 이 성경은 가정에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책’이었고, 또 대다수 독일인들에게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이것 말고는 달리 없었다. 또한 그들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몇 권 되지 않는 책 중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대중매체라는 게 생겨나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첫 경험이기도 했다. 모두들 루터의 새로운 성경을 읽거나, 읽는 것을 듣거나 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이 일상 표현이 됐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대중이 따라하는 구호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진 보편성이 호소력을 가진 셈이었고, 독일어의 범위 전체를 온전히 포용해 결국 현대 독일어를 형성하는 언어적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독일 문학과 공연 예술의 형식적 재건에도 도움이 됐다. 이 성경뿐 아니라 루터가 가져온 영향은 아주 놀랄만한 것이어서, 훗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루터를 가리켜 “독일 민족정신의 화신”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도 루터를 역대 독일인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고 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독일어 성경의 영향은 제국의 국경을 넘어 멀리 퍼졌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등지의 성경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성경이 위대한 영어 성경 번역가에게 불멸의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교개혁 운동의 영웅,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은 루터가 독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할 무렵, 영국에서 피신해 유럽 대륙으로 건너왔다.

틴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준 루터의 업적 중 한 가지는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였다. 이전의 성경전서들에는 성경을 배열하는 표준이 없었다. 번역자들이 임의로 순서를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루터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르치셨나”를 기준으로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와 사도행전, 서신서(구세주가 드러나는 강도에 따라 순서를 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순으로 성경을 배열했다. 틴들은 루터가 정한 이 순서를 따랐으며, 이후로 사실상 모든 성경 번역자들이 동일한 순서를 따랐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틴들도 독자를 감안해 라틴어로 된 교회 용어들을 삼갔다. ‘참회하다’(do penance)는 말 대신 ‘회개하다’(repent)는 표현을, ‘교회’(church) 대신 ‘회

중’(congregation)을, ‘사제’(priest)가 아니라 ‘장로’(elder)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그리스어 ‘아가페’(agape)를 뜻하는 말로 ‘자비’(charity) 대신 ‘사랑’(love)이라는 표현을 썼다.

루터와 틴들 둘 다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운율과 어휘로 번역했다. 그리고 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루터의 교리를 최대한 지지했다. 이 두 번역자가 많은 곳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틀림없지만 ‘영어 성경의 아버지’ 틴들에게 루터가 미친 영향 역시 명백하다.

틴들의 영어 번역이 ‘킹제임스 신약 성경(틴들의 번역을 기초로 1535년 출간됐다)’의 90% 이상,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미국에서 출판됐으며 신약은 1946년, 구약은 1952년에 완성됐다)’의 75% 이상을 이루고 있다. 루터의 유산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루터는 많은 면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인 면모 중에서, 그 영향력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것이 번역가이자 작가로서의 그의 재능과 능력이었을 것이다. 루터에게 이런 면모가 없었다면, 종교개혁과 통일된 독일 국가의 성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결론으로, 중세 시대는 종교적 권위가 교황 체제에 집중된 중앙집권 시대였다. 이런 권위 체제의 아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오로지 그 독점은 라틴어를 통해 유지됐다. 뒤집어 말하면 교회 권력이 있어서 라틴어가 아닌 각 지역 속어의 사용은 그 자체가 잠재적 이단이자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서번역과 해석에 대한 문제다.

중세 시대 유일한 공식-합법적인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Vulgata)였는데, 당시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바로 중세 사회는 언어를 획일화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믿었던 사회였다. 한마디로, 소통이 가로 막힌 중세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종교개혁은 소통의 혁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한다. 교황청이 라틴어 즉 언어로 독점했던 진리가 루터의 성경번역으로 인해, 처음에는 독일 국민에게 그리고 다수의 유럽 국민들에게 소통의 영역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1522년 독일어 신약성경이 번역 출판될 때는 ‘9월 성경’으로 불리는 초판이 3,000부 인쇄됐고, 일찌감치 같은 해 12월에 제2판이 나왔으며, 이후로 11년간 고지독일어로

다. 미공중종교조사소(PRI) 설문 결과도 백인 복음주의자들 40% 정도가 ‘미국사회나 학교에서 하나님이나 도덕에 대한 강조가 향후 줄어들 수 있는 대량살상을 방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총기 규제에 강력하다. 지난달, 미복음주의협의회(NAE)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단장이나 중진들 그리고 각종 선교단체장들 중 55%가 강력한 총기규제안이 입법화 돼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NAE회장 레이 앤더슨 목사는 “복음주의 리더들은 총기에 대해 미묘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들은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항을 받아들이면서, 총기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할 때 슬퍼하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주의 진영의 총기 규제에 대한 엇갈린 정서를 말해준다. 앤더슨 목사는 트윗을 통해 라스베이거스를 위해 기도하며 벌어진 살상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많은 언론들과 총기 반대 단체들은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자 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자유와 독립의 상징인 총기 소유 문제가 혁명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두통거리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회, 저지독일어로 7회 중판을 냈다. 루터가 살아 있는 동안 모두 10만 부 이상 인쇄됐다. 1534년 루터의 친구와 완역본이 나온 이래로 1622년까지 85판을 찍어냈다. 당시 폐쇄적인 종교 세계를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판을 거듭했던 데 그치지 않고, 계속 개정된 데 했다. 이런 개정 작업을 통해 진리는 민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이를 통해 종교개혁의 소통은 더욱 힘을 얻었다.

또한 번역된 독일어 성서의 언어는 단순히 자국어 중시하는 분위기나 종교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표준 독일어 형성과 그 고전화 과정에 본질적 역할을 했으며, 더 나아가 주변 유럽 국가들의 자국어 성서번역 열기를 북돋는 결과, 성서의 속어화는 북구와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같은 시기에 일제히 진행됐다.

루터가 머리에 담고 있던 복음의 사상은 교권에 찌든 교회와 지식인 사회라고 하는 대학을 넘어 중세인들이 염원하던 구원의 길을 향한 지도마져 바뀌버렸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소통의 혁명이다. 결국 종교개혁은 인쇄술과 더불어 유럽의 교육 전통과 교회 전통을 변혁하는 힘이 됐다!

루터가 머리에 담고 있던 복음의 사상은 교권에 찌든 교회와 지식인 사회라고 하는 대학을 넘어 중세인들이 염원하던 구원의 길을 향한 지도마져 바뀌버렸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소통의 혁명이다. 결국 종교개혁은 인쇄술과 더불어 유럽의 교육 전통과 교회 전통을 변혁하는 힘이 됐다!

##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전하는 리더!

(1면에서 계속)

리더는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시는”(사61:1, 새번역) 은혜의 치료자가 함께하심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역할인 것이다.

그 심자가 상처는 그저 상처로 남아 있지 않고, 모든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깨어졌던 희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빚어가는 능력이 된다. 예수님은 몸의 병만큼 내면의 병도 중히 여기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슴 아픈 세상과 일만 갈래로 부서져 나간 마음을 능숙하게 치유하신다.

깨어짐으로 들어오는 사랑

“어쩌면 하트가 찢어져 열린 자리로 사랑이 더 쉽게 들어오겠지요?” 종이로 만든 하트의 주름을 펴다가, 중심이 찢어진 종잇조각을 들고 있던 한 소녀가 한 말이다.

리더는 어쩌면 하트가 찢어진 그 자리로 새로운 사랑이 스며들 것이라는 확신으로 영혼을 대한다. 이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은 그 틈새를 통해 시작되기

## 소망 칼럼

### 현실이 암담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현되어야 한다. 이 기쁨을 보여주고 날마다 노래해야 한다. 어떻게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첫째,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기쁨이 유지된다.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성도의 얼굴이 어둡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주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는 경제문제, 불경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끄떡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나를 내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이다. 주 안에 굳건히 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둘째, 주님을 모시고 살면 기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과 소유에서 온다. 불안정한 기쁨이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 그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주님을 모신 성도가 항상 기쁜 것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가? 주님 안에 거하시라 바란다.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환경을 이겨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셋째,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관용의 삶이라고 한다.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모실 뿐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베풀 관용의 대상은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되 특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다. 또한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보다 먼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깊이 새기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듯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양보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조금은 어수룩하게 사는 것도 삶의 지혜이다. 너무 빈틈없이 살아가려 하면 주의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관용을 베풀 때 큰 관용도 베풀게 된다.

성도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만이 불행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역시 깨어지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상처의 벌어진 틈새로 내면의 아름다움이 배어나 오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그것이 된다.

진정한 리더는 깨어진 영혼의 상태에 대한 연민과 함께 건강하고 성경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깨어짐 속에서도 모두가 그



만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깨어짐과 상한 마음을 깨어진 채로 내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은 깨어짐을 향해 깨어있는 치료자이다. 독생자의 심자가 죽음을 뜻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깨어짐을 품은 리더라면, 깨어진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겨날 수 없었던 특별한 아름다움을 거기에서 찾게 될 것이다.



# 목양칼럼

##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 1세(Clovis, 1 481-511)

이태리의 한 귀족이에서 시작된 로마가 무려 천년동안이나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다. 그런데 5세기에 유럽 북동부 지역에 있던 게르만족이 훈족에 밀려 일어난 민족의 대이동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찬란했던 로마제국의 수명도 476년에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종언을 구해야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를 위해 싸우도록 고용된 즉, 게르만의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찬란했던 문명국가 서로마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이다.

서로마가 멸망하자 사나운 게르만족들이 사방에서 활개를 치게 되었다. 그때 갈리아 지역을 점령한 프랑크족이 있었다. 한 때 서로마제국의 용병 대장이기도 했던 부왕 힐데리히 1세는 튀링겐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튀링겐의 공주이자 왕비인 바신트를 사로잡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그 사이에서 클로비스 1세(Clovis 1)가 태어났다.

그의 부계로는 트로이의 폴리도

로스라 헬레노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그의 고조할머니 프로트문다는 유대인으로 메로빙거 왕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라는 신비스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클로비스의 가문이었다 메로빙거 왕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인정하고 있다. 확인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중에 힐데리히 1세의 독자였던 클로비스 1세는 16세에 아버지를 이어 살리족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투에 참여했고 강인함을 타고난 위인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프랑크족의 한 지파인 살리프랑크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어려서부터 용맹함을 보였던 그는 드디어 갈리아 북부 지방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다른 군주들을 차츰차츰 제거하기 시작했다. 춘추전국시대처럼 여기저기 수많은 소위 영웅들이 활거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쾰른을 점수

했고, 주변의 나라들을 힘으로 또는 계략으로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다. 무력으로, 또는 모략으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군주는 온화하고 여우처럼 교활하고 또 사자처럼 무서워야 한다. 선량한 군주는 정복당하기 쉬우므로 국민을 불행에 빠뜨린다. 권력을 획득하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무슨 못된 짓을 해도 좋다. 아니 그래야 한다. 또 군주국을 정복하게 되면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혈족 전원을 사형에 처해라. 남겨두어 봐야 반항하거나 반란을 꾀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합하는 자가 바로 클로비스 1세였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을 야금야금 정복해 나갔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상대하기도 했다.

갈리아의 로마인 왕국을 정복하던 중 부하들이 어느 교회에서 화려한 꽃병 하나를 강탈했는데 주교는 클로비스에게 편지를 보내 꽃병을 돌려달라고 했다. 클로비스 1세는 승전 후 전리품을 분배할 때 부하 장군들에게 정해진 몫 외에 꽃병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프랑크족 어느 장군이 클로비스의 지시에 불복하여 도끼로 꽃병을 깨뜨려버렸다. 클로비스는 하는 수 없이 깨진 꽃병을 주교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그 후 1년 뒤 군사회의 중 자신에게 불복한 장군을 알아보고 불시에 장비 검열을 했고, 그 장군에게 무기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았다고 호되게 책망하며 그의 도끼를 땅에 던져버렸다. 장군이 도끼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클로비스는 자신의 도끼로 그의 머리를 쪼개 버렸다. 그리고 너는 꽃병

을 이렇게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런 행동을 보고 모든 부하들은 간담이 서늘하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부하들은 클로비스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되었다.

클로비스 1세는 프랑크 왕국을 세웠다. 프랑크 왕국은 영토적으로 구라파의 중심을 아우르는 지역이었다. 또한 그의 중요한 업적은 그가 기독교 정통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대부분의 게르만족의 군인들은 아리우스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클로비스는 기독교 정통 신앙을 지녔다.

그의 아내 클로틸다(Clothilda)는 독실한 기독교 교도이었기에 일찍부터 왕인 남편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다. 그리고 개종하기를 권하였으나 클로비스는 거절했다.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이교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아들이 세례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아기는 세례복을 벗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다. 클로비스는 세례에 그 원인을 두었으나 클로틸다는 아기의 영혼을 곧장 데려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은 후 병이 들었다. 클로틸다는 간절히 기도했고 아이는 병에서 일어났다.

이일이 있고 얼마 후에 클로비스는 라인 강 종류에 거주하는 알라만족(Alamanni)을 토벌하려 나섰다. 가 전멸당할 위기를 맞이했다.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클로틸다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

습니다. 제게 승리를 주소서, 그러면 제가 세례를 받겠나이다. 제가 섬기던 신들에게 기도하여 보았지만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구하오니 저를 구해주소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웅얼인 지적들은 대열을 이탈하였고 뿔뿔이 도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너무나도 상스러운 승리였다.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하여 그는 아내 클로틸다에게 말해주었다. 클로틸다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결정적 사건들이 종종 나타났다. AD 312년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와 폰테 밀비오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도 도무지 승산이 없었다. 자신의 휘하에는 5만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상대는 18만이나 되는 군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전투에서 패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것이다.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투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깃발이 보였다. 그 깃발은 크리스투스라는 헬라어 "쫓자와 돌 쪼개자"로 구성되었다. 그러면서 음성이었다. "이 깃발을 가지고 싸우라!"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치열한 전투를 예상했는데 심겁게 끝나고 말았다. 잘 싸우던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갑자기 폰테 밀비오 다리를 건너가서 방어를 하라는 명령을 받아 급히 좁은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 많은 무리가 한꺼번

에 건너가느라 아수라장을 이루었고, 다리 난간이 밀리는 사람들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수많은 군인들이 강물로 떨어져 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강으로 떨어진 군사 중에 황제 막센티우스도 있었다. 기이하기만 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의 자유를 공포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기독교를 돕고 옹호하는 자로 살았다.

역시 클로비스 1세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그가 세운 프랑크 국가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였고, 16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터전을 닦았다. 클로비스는 승리의 감격으로 30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즉 랭스의 주교 레미기우스(Remigius)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기독교 교도가 되었다. 이 일은 후후 구라파의 왕들이 너도 나도 기독교를 따르는 모델이 되었다.

아리우스파를 신봉하는 게르만족을 이긴 공로는 바티칸의 절대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클로비스와 프랑크 왕국의 위상을 높였다. 동로마제국도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기독교의 보호자로 칭송하고 그에게 로마의 특권 계급의 지위와 콘솔의 칭호를 부여했다.

그는 메로빙거(Merovingian-힐데리히의 아버지 메로베크의 이름에서 유래함)왕국을 세웠다.

(13편으로 계속)

# 푸/른/초/장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기도원 담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분이신 줄 믿고 떨지만(약2:19)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시대를 지나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신임을 받았습니 다. 다리오 왕은 세 명의 총리 중 하나인 다니엘을 더 높은 지위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위한일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한 왕의 최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늘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따라 오는 것처럼 여두움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 왕의 버림을 받고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 다. 사자 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방인인 다리오 왕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단6:26-27).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1. 기도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단6:5)

다니엘의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민첩함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그를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다니엘의 독특한 점은 기도를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재임 시절에는 꿈 해몽을 요구하는 왕에게 목숨 걸고 기도할 시간을 요청하여 모든 이들을 긴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단2:16-18).

본문도 그의 기도생활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에

도 세 번씩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여 참소하는 삶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그것

3)기도가 여론을 이깁니다.

참소자들의 말에 다리오 왕은 설득당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이 도전하지만 우리의 기도도 승부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뛰어난 전략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위를 뻗들며

대적하는 무리를 향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앗수르의 도전 앞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맞설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심판만으 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핍박과 꾸짖음과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2. 결정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단6:16)

왕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왕의 판단은 결정적입니다. 당연히 왕의 주변에는 많은 모사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아침의 말에 연약합니다. 칭찬의 소리에 호의적이고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청원이라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작정한 인물들은 타당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발톱을 숨기고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참소자들은 왕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왕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로만 보였습

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이 먹지도 못하고 침소에 눕지도 못하는 괴로운 일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왕을 위한 일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신들의 계락을 위해 단지 왕을 이용했다는 것을 안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범으로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의 열왕도 아니며 방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1)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니

다니엘은 범법자가 되었고 법대로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참소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도 왕의 법대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오고 뜻을 이루었다 기뻐하던 참소자들은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3. 사자 굴에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단6:22).

참소자들은 불의의 법과 굶주린 사자들을 통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자신들이 생각만으로 총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략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모사는 적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되었습니다.

1)사자굴도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공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잠1:33). 지옥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이 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된 이방인의 땅 여러고 성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수2장). 전혀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 기도 라함입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 은혜도 있었습니 다.

2)사자굴은 다니엘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광풍으로 파선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모두 구조를 받게 되지만 바울은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으로 육지에서 죽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고 원주민들은 돌려 생각하여 그를 신이라 생각했습니다(행28:6). 이 사건으로 오히려 바울은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고 로마로 항해할 모든 것을 도움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사자굴은 악인들을 위해 필요했습니 다.

참소하는 자들을 맞서기에는 다니엘은 연약했습니다. 왕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간교한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굶주린 사자들은 참소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삼켰습니다(단6:24). 에스더서에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삶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 높은 망대를 준비했지만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에8:7).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악인들의 뜻과 음모는 그들 자신에게 정죄와 심판이 됩니다.

4)사자굴은 하나님이 증거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살아난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은 그의 관할 아래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단6:26-27).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찾아가 그를 살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시며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휩쓸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결정은 그들에 한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한 것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는 복음 확장의 뜻 담겨있습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 은혜도 있었습니 다.

2)사자굴은 다니엘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 (다니엘 6장 19-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함께 하였다”(단6:28).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언론의 자유” vs “혐오발언”

특별히 지난 8년간의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의 가장 큰 후유증 중 하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미국 헌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보수 크리스천들과 학생들까지도 깊은 우려를 갖게 하는 일들이 왜곡된 “사회정의”라는 이름 아래 아이비리그 학교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 기도제목으로 나옵니다.

9월 초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인종 증오의 발언’으로 명명(label)된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이 두 사건들은 자세한 조사도 없이 단숨에 “증오 발언”으로 명명되었기에 진짜 증오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좌파가 퍼뜨려놓은 유행의 흐름에 휩싸인 것인지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코넬 총학생회 의원인 Dara Tokunboh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통과시킨 결의안을 못마땅해 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일 대학교의 학장인 마빈 춘

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대학생이 39% 밖에 없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3%의 대학생은 상대방을 offend하는 즉, 기분 나쁘게 하는 발언은 “혐오, 증오의 발언”이기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Offend하는” 발언...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또한, “기분 나쁘게 하는” 발언이 왜 “혐오, 증오의 발언”으로 명명되고 있는 걸까요?

“언론의 자유”와 “증오 발언금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유진보주의 정치인들과 주류 미디어가 장악한 주(State)들은 좌파에 의해, 좌파의 개념에 어긋

자유진보주의자들이 정치적 흐름으로 유행처럼 사용하는 “인종 차별이나 혐오(Hate)발언”이란 명목 아래 사람들의 개인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억압한다면 미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에 대한 탄원의 자유를 보호해줍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자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정부가 이 자유를 시민들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헌법 제1조에까지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아이비리그 학교들까지도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완전히 잘못된 이념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성

###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언론자유’와 ‘미국헌법’에 대한 해석 필요 아이비리그 대학 내에 잘못된 ‘인종증오 발언’으로 참 자유 억압



The Cornell Daily Sun에 의하면, 사건의 발단은 한 흑인 학생이 학교 안에서 자신이 인종 비방하는 말을 들었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학교에 고발하고 바로 며칠 후 어느 라티노 학생이 Zeta Psi라는 클럽 회원이 “(학교 안에 있는) 라티노 생활 센터 주변에 벽을 쌓아 두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들은 “혐오 증오 발언 Hate Speech”이라고 학교에 고발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건의 고발로 인해 코넬 총학생회는 사실검증을 위한 자세한 조사 없이 즉각적으로 대학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250여명의 코넬 학생들과 함께 ‘혐오/증오의 발언’ 금지를 위해 학교 현행 정책(Code of Conduct)을 개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흑인학생연합회는 인종 차별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항의하며 전반적인 변화를 즉시 보기를 원한다고 흑인 학생연합회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에 모여서 거친 항의를 했는데, 이들은 항의를 하기 전에 대학 행정부에 1. 인종차별 금지 정책연구소를 세우고 2. 정신 건강 전문가를 추가로 고용하고 3. 모든 대학교 직원들에게 필수적인 다양성 훈련을 시킬 것을 포함하여 총 12가지를 총학생회 측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코넬 대학 회장 폴락(Martha Pollack)은 흑인연합회에서 요구한 12가지 사항들을 다 받아들이고 코넬 총학생회에서는 무엇이든 ‘혐오 증오 발언’은 다 정죄하

(Marvin Chun)이 학교 보드가 “신입생freshman”과 “위학년생 upperclassmen”이라는 낱말을 없애고 성별 중립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9월 7일에 대학의 웹사이트에 공식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마빈 춘은 올해 여름에 학장이 된 동양계 선생인데, 춘은 발표하기를 성별 중립 용어들이 현재 학교 규정 및 첫해 핸드북에 있고 내년 가을학기까지 모든 예일 대학 출판물 및 통신에까지도 갱신되게 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하며, 성별 때문에 “offend 기분나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코넬과 예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대학생 여론 조사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조가 서로의 의견 차이로 ‘기분 나쁜’ 발언이 오갈지

나는 것들은 모두 “증오, 혐오, 미움”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가 “증오, 혐오 발언”이며 무엇이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증오 발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미국 공립학교 안에서 금지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늘 친절과 예의를 지키는 것을 저는 미국의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의견차이나 개개인의 생각, 그리고 어떤 때는 격한 감정까지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배웠고 그 자유를 사랑합니다.

“언론의 자유 금지”는 공산국가에서나 행해지는 무서운 차별인데, 그런 이념과 행위까지도 좌파

적순위와 상관없이 그들의 가치관은 점점 진정한 “자유”를 미워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기도제목

예일을 포함한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처음에는 기독교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열방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 세워졌던 대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바쁜, 더 나아가 하나님앞에 악과 거짓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 미디어와 뉴스들은 그러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더 크게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더 이상 왜곡된 정치적 이념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비리그 대학교들답게 우리자녀들을 온전한 수업으로만 가르치는 대학교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며, 무엇보다 기독교 뿌리를 돌아서 다시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육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위클리프란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의 개혁적 사상과 노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아나하임 김 장로

**A:**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햇살을 높이 든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입니다. 그는 1320년대 사제서품을 받고 옥스포드로 갔습니다. 위클리프는 그의 신학적 견해 때문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1378년 사람들 앞에서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영적 권위의 최고 근원임을 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379년 그는 교황 제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교회의 머리는 인간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인 그리스도이므로 진정한 교황의 권위는 지위가 아닌 도덕적 성품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볼 수 있는 수도승의 부도덕, 구걸행위,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성지의 순례를 비 성경적인 것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성행하던 교회 회의의 우위론(Conciliarism)을 반박하면서 교회의 모든 전통, 교회 회의의 결정, 교회의 교서, 교회의 모든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 의하며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클리프의 교회 정치사상은 성

### “종교개혁의 계명성” 존 위클리프, 이단 정죄 전 별세

경적입니다.

오덕교 목사가 쓴 “장로교회사”를 보면 그의 사상을 10가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왕권도 교권처럼 신성하다. 2)모든 개인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 갈수 있다. 3)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 4)로마 천주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지배권이나 우위권을 주장할 수 없다. 5)교회 재판은 세속 법정에 종속되어야 한다. 6)교회가 부를 축적해서는 안되고 교회 재산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납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7)성상숭배나 성지 순례는 우상숭배이다. 8)사제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은 없다. 9)성경은 신앙의 유일한 기초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권리가 있다. 10)감독과 장로는 동등한 직위(Equal in rank)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의 감독직과 사제직은 같다.

위클리프는 모든 교회와 교회 사이의 성직자와 성직자 사이에는 평등성(Equality)이 회복되어야 하고 지교회의 자율성(autonomy)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쓴 “꺼지지 않는 불길”이란 책을 보면 위클리프는 콘스탄츠 공의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전인 138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의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한 뒤 그 시신을 파내 불태우고 뿌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보헤미아에서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일어나자 보헤미아의 개혁자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었던 존 후스(John Huss, 1369-1415)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여 그를 변호했고 그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교황에게 면죄부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연옥의 존재에도 의문을 표명했습니다.

후스는 그의 책 “교회론”(De Ecclesia)에서 성직자의 재산 소유를 반대하고 교회의 계급 구조화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성직매매로 인한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온 회중이 교회 직분자들 선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스는 후대의 칼빈과 루터에게서 볼 수 있는 기독교 정치원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 M.Div 신학
  -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 DM 음악 박사
  -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교 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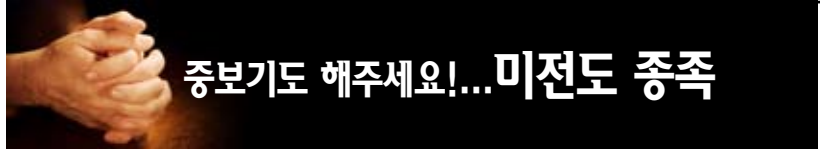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동부 브힐(EASTERN BHIL)



브 힐 (Bhil)은 2 개 지역으로 분리한다. 중부 또는 "순" 브 힐(Pure-Bhil)과 동부 또는 라 주푸트 브 힐(part-Rajput Bhil)이다. 동부 브 힐 족들은 인도의 중서부 산맥에서 살고 있다. 특히 북부 구자라트(Gujarat), 남부 라자스탄(Rajasthan), 그리고 북부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에서 살고 있

다. 그들은 구자라티(Gujarati)족과 라자스타니(Rajasthani)족 사이를 연결하는 인도의 부족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인도 아리아인(Indo-Aryan)어의 하나인 데왈리 빌리(Dehwali Bhilli) 언어를 말한다. 초기에 브힐 왕(rajyas)은 평원지대에서 구릉지대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그들의 독립과 통치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브힐족은 모갈스(Moghals)족들, 이나 마라타(Marathat)족, 그리고 영국인들과 대적해 전투를 벌였다. 1947년까지 "브힐족의 살해"(the Bhil kill)로 유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브힐족은 사르다 사라보 댐 공사 계획(Sardar Saravor Dam Project)으로 인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 댐이 완성되면 브힐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몰된다. 새로운 정착 계획이 논의되곤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삶의 모습 오늘날 브힐족은 주로 소작농업, 막노동, 촌락의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 농지가 점점 적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지 못하였다. 이곳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다루는데 선수들이다. 사실 브힐이란 말은 빌리(Billee, 활)란 단어에서 유래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은 부족의 독특한 활과 화살을 소지한다. 여성들은 진한 청색이나 검은 사리(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천) 안에 블라우스

를 입는다. 도시의 청년들은 머리에 흰색으로 매고 귀걸이를 달고 칼이나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힌두인들과 구별된다. 동부의 브힐족은 보통 부끄럼을 잘 타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즐긴다. 축제, 춤, 연극 그리고 음악은 그들의 폭넓은 문화지만 불행히도 이 행사기간 중 엄청난 술이 소비된다. 브힐족들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결혼한다. 만약 타 계층과 결혼하게 되면 하위 계층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상위층으로 전위된다. 이런 관습은 부족 내에서 엄격히 강요되고 있다. 각 촌락은 논쟁을 해결하는 우두머리가 있다. 가족들 간에 존경심이 강하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교감이 있다. 재산의 분배는 동등하게 아들들에게 돌아간다.

브힐 촌락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가족들은 수수, 옥수수, 밀과 보리가 자라는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와 나무 가지로 잘 엮어서 만든 잘 정돈된 집에서 살고 있다. 지붕(받침모양)은 보통 흙으로 만든 타일을 쓰고 있지만 가끔 벗 집과 나뭇잎으로 만든다. 신앙 동부 브힐족은 거의 대부분 힌두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토속 종교를 믿고 있다. 쉬바(Shiva)는 대신이다. 조상숭배 또한 매우 대중적이다. 샤만(Shamans)이 만신들과 흙 우상에게 제물을 놓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이들의 이방신앙에도 불구하고 상위 카스트인 바가(Bhagat) 힌두교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었다. 그가 죽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복

서지방에 대가뭇물이 들것이라 경고했다. 그다음 그들은 북서지방에서 온 분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성경에서 찾았으며 가르칠 선생들을 찾아야 하며, 그들은 참 하나님과 동정녀에게서 난 죄 없이 성육한 자에 관한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며, 그 힌두교부는 계속해서 또한 돌들과 우상을 버리고 이 죄 없는 분-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뭇물은 1899-1900년 그 교부가 죽은 바로 즉시 발생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오늘날 6개 선교기관이 이 부족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2천 6백여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는 인구의 0.1% 뿐이다. 많은 중보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그리스정교회 '성별선택 허용법안 폐기돼야'

그리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 정교회가 알렉시 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아(급진 좌파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전체성 관련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스 정교회는 5일 "성별은 선천적인 것으로, 선택할 수 없다"며 태어날 때의 성별과 무관하게 추후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스 정교회 측은 "이번 법 개정안은 관습과 상식을 거역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을 파멸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재 그리스에서 성별을 공식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환수술이나 정신질환 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가 수 일 내로 표결에 부칠 예정인 법 개정안이 승인되면 보다 단순화된 법적 절차를 통해 성별 변경이 가능해진다. 보수적 성향의 그리스 정교회는 2015년 12월 그리스 의회에서 동성결합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가족 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올 노벨평화상은 '반핵' 단체에...북핵위기 속 주목

핵무기 폐기 운동에 앞장서 온 비정부 기구(NGO)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최근 북한의 핵도발로 국제 사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벨상을 시상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6일 2017년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선정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노벨위원회의 배트 리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커진 세계에서 살고 있다"며 북한을 구체적인 예로 언급했다. 그는 "몇몇 국가들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어주듯이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구하려 시도하는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며 "핵무기는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수상 당사자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그들은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핀 사무총장은 수상자 선정 발표에 앞서 최근 AFP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핵무기 철폐를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AFP 인터뷰에서 "단 한 개의 핵탄두라도 대도시에서 폭발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핵무기는 말 그대로 세계를 끝장낼 위험을 안고 있다.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일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수상자 발표가 있기 한참 전부터 '핵무기와 관련한 단계나 개인이 수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꽤 가능성 높게 접쳐졌다. 수상 가능 후보 명단에 ICAN도 일찌감치 포함돼 있었고, 이란 핵협상 타결의 주역인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도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도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로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진 데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미 간 충돌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핵 관련 단체의 수상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로 미국과 북한은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듯 호전적 수사들을 총동원하며 비난전에 열을 올렸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울에 핵무기를 쏘면 단 한발로 약 78만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는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하는 등 실제 핵전쟁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노벨위원회가 세계적인 반핵운동 단체에 평화상을 시상기로 한 것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신들도 모두 이런 점에 주목해 시상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북한의 호전적인 교착상태로 냉전시대 이후 핵충돌 가능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 속에서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북한이 야욕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이제 미 본토까지 위협하며 세계 평화에 깨질 위기에 처한 시점에 반핵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보호 '피난처' 폐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경찰이 이민 신분을 심문하거나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에 가담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불법체류자와 가족들에게 불확실한 시간이다. 이 법안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한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두려움에 떨며 하루를 보내는 가족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대 12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더 위험해졌다고 경고했다. 데빈 오말리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로 돌아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법 집행을 해칠 수 있는 법안을 성문화했다"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23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도 금연에 큰 효과...과학과 결합면 '시너지'"

담배를 끊는 데는 의사와 상담뿐 아니라 목사, 이맘 등 종교 지도자들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권고가 나왔다.



5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라트robe 대학의 무하마드 아지즈 라만 박사는 전갈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뉴질랜드 공중보건협회 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연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라만 박사는 이슬람교에서는 흡연을 '죄악'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적 메시지가 과학적 사실과 함께 결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원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 담배를 끊도록 고무해야 한다"며 금연을 장려하는 종교의 역할은 금연의 장점 등 과학적 사실을 담은 유인물 등으로 뒷받침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단 금연뿐 아니라 모유 수유의 중요성, 성병 예방 등 다른 건강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교계와 함께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아동권리위, 北에 어린이 차별·고문 중단 촉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4일 북한 아동 권리 관련 보고서에서 출신에 의한 차별과 어린이에 대한 고문, 모욕 등 처벌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북한 어린이 인권 상황을 다룬 다섯 번째 정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범죄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계층,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영유아, 소아 사망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적 박탈, 불평등, 어린이 영양결핍,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의 중단도 권고했다.

강제로 북한에 돌아오게 된 어린이와 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어린이, 수용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어린이들이 고문과 징벌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제 사상 교육의 폐지와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북한은 위원회 지적에 출신 성분에 의한 차별은 적대 세력들이 지어낸 이야기이며 경제 체제 때문이라는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38노스 "핵무기 한발로 서울 356만명 사상"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5일 북한의 핵무기 공격 시 서울에서 356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악 중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사상자 숫자로,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38노스는 북한이 서울 상공에서 250kt 위력의 핵무기 1발을 폭발시킬 경우 약 78만명의 사망자와 277만명의 부상자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 또는 앞으로 보유할 핵무기의 최대 폭발력 250kt를 감안한 것이고, 폭발 위치도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서울의 상공을 가정한 분석이다.

38노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이 같은 규모의 핵무기로 도쿄를 공격할 경우 사망자가 최대 69만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24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무기 2발이면 서울과 도쿄에서 148만명이 숨지고 525만명이 부상한다는 주장이다.

38노스는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20-25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평균적인 폭발력을 가졌다고 가정할 때 사망자가 최대 210만명, 부상자가 77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38노스의 이번 분석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핵무기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우선성이 위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극구 피해야 하는 옵션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막대한 사상자 숫자를 거론해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美민주당 "총기 살상력 제한해야" 법안 제출

미국 민주당은 4일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후속책으로 총기 규제 법안을 내놨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단은 총기의 살상력을 높이는 부품의 제조와 판매,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했다. 법안은 한 발씩 발사하는 반자동 소총을 연사 가능한 전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의 판매와 양도, 생산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으로 이뤄졌다.

입안을 주도한 다이앤 파인슈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상 최악의 총격사건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여당인 공화당에 상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2011년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가 회복한 민주당 가브리엘 기포드 전 하원의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화당에는 미국총기협회(NRA)의 지원을 받는 의원이 많아 민주당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들은 총기 소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규제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핀란드서도 '30대남' 임신...'출산혜택 달라'

핀란드에서 '30대 남성'이 임신했지만, 핀란드의 출산 관련 혜택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여성으로 태어났던 이 남성은 남성으로 전환한 이후 다른 남성을 만났고, 두 사람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게 되자 호르몬 요법을 통한 성(性) 교정 프로세스를 거쳐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출산 관련 혜택은 임신한 여성에게만 적용한다'는 핀란드의 사회보장 법규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핀란드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출산과 관련해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4일 이상 임신한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현재 임신 4개월째인 이 남성의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두 남성은 남성의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임신한 사람은 출산 관련 혜택 대상자로 인식을 못 하는 행정 시스템이 문제일 뿐 핀란드의 보건전문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현재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코드가 다르다.

한편, 지난 2008년 미국의 토머스 비티가 세계 최초로 출산한 남성으로 등록한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 남성이 출산한 사례가 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英 인구센서스, 남성 여성 답변 안에도 될 듯

영국 통계청이 인구센서스에서 성별을 반드시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자발적' 답변항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응답자의 성(性)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인구센서스가 된다고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 디센티아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현재 영국 인구센서스는 '중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발적 답변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직접 인구센서스에서 약 400만명이 답변을 거부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퍼낸 보고서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인구센서스 질문은 "(취지로) 무관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침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트랜스젠더에게 그렇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엔 또 '남성' 또는 '여성' 이외 '기타' 답변을 두는 방안 역시 트랜스젠더를 균일화하며 사회의 남은 구성원과 차별화하기 때문에 역시 "무관하고, 침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성(性) 질문항목은 "답변이 의무화돼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영국 인구센서스는 2021년에 진행된다.



종교개혁

우리는 지금까지 루터의 종교 개혁이란 관점에서 이민교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심에 독일의 한 도시에서 무명의 젊은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있었다. 그의 개혁 의지는 작은 불꽃이 되어 서서히 확산되더니, 결국 교회 역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길을 달리하는 개신교 교회의 출발이 이뤄진 것이다.

루터가 경험한 교회는 혼동과 갈등을 이겨내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루터 본인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다. 루터가 활동하던 16세기의 교회의 모습과 21세기 교회, 그것도 이민교회의 현주소는 매우 다르다. 지난 5세기동안 개신교 교회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해왔다. 신학적 강조점을 달리하는 여러 교파가 생겨났다. 세속 역사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과 퇴보를 거듭하여 왔다. 이민교회의 모습도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민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배경과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가 추구하던 '개혁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커다란 영적 유산으로 주어졌다.

교회개혁, 신앙개혁

일반적으로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은 16세기에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루터는 물론 당대와 후대의 개혁자들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세속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사 교과서에 도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The Reformation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되었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자칫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됨으로써, 이 시대의 교회가 겸손히 받아야 하는 중대한 교훈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개혁이었다. 기존의 교회 모습을 급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점차 고쳐가는 형태의 개혁이었

다. 루터가 개신교를 출범시켰다는 것은, 그가 구교의 존재를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 구교가 개혁을 외치는 루터를 잘라냈다. 그 결과, 개혁된 교회의

지,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발견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통과 규율의 울타리 안에서 형성된 근

자체로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개신교 교회는 선명히 다른 두 종류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개혁자들이 후대 교회에게 전해준 개혁정신을 수용하거나 거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과, 이민 교회라는 매우 독특한 모습에 익숙해 있는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현재 이민 교회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교회의 모습에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2세대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하길 원한다.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세웠던 이민 교회들과 아주 오래전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세웠던 이민 교회가 걸어간 발자취를 추적해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 교회에 속한 성도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그 수도 급감할 것이다.

비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 미국 사회 안으로 서서히 동화 되어갈 것이다. 각 교회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하여 차세대를 위한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며, 더욱 분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 교회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혁정신에 입각한 신앙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성경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단순히 딱딱하고 차가운 교리만을 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이미 말씀하여 놓으셨다. 개혁정신은 성경 안에 자신이 찾는 답이 분명하게 있다는 확신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정신은,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젊은 신학자를 통하여 후대 교회에 유산으로 전달하게 하신 개혁정신의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고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자 "성경으로 돌아가라!"

covenantcho@yahoo.com

#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9)

## -루터의 성경적 종교개혁과 이민교회(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며 신앙개혁... 루터의 도전 원동력은 성경의 진리 각 교회 상황은 달라도 불변 성경 진리를 신앙의 유일규범으로 삼아야

모습이 가시화된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로마가톨릭교회의 아들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구교를 위해 삶을 바친 신부였다.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 확실하지 않은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갈래 길 앞에선 교회

루터의 개혁정신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데 있었다. 성

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개혁의 첫 발걸음이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개인과 단체는 개혁의 대상이다.

지난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루터와 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하는 것이었다. 즉, 성경을 모든 신앙의 규범으로 삼지 않으면 임의대로 선택한 것을 진리로 여긴 것이다.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 500년간 인본주의로 흘러온 교회... 개혁정신 수용 혹은 거부 택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확신해야

종교개혁은 분명 교회개혁이었으나, 그 교회개혁은 분명 신앙개혁이었다. 루터가 1000년을 지나오면서 화석처럼 굳어져버린 중세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대항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성경의 진리였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루터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

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 모든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힘차게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교회가 처한 배경과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를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

성경중심의 개혁정신이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17세기 계몽주의와 18세기 말 낭만주의, 그리고 20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포스트모던 사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그 위치에 인간을 절대적인 힘과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모습으로 포장하여 올려놓는 것이다.

#### 성경으로의 개혁

각 시대를 특징짓는 정신이 있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 21세기 한민 이민자들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정신이 있다. 초기부터 이민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오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리더십 코멘터리 (5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리더여, 밝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어느 가정주부가 고등어 두 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내일 아침에 이것으로 반찬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가 없어졌다. 그래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니 자기 구두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고, 신발장을 가보니가 신발장에 고등어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이다. 바쁘게 허겁지겁 살다보면 행동은 있지만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생각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인생길의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행위 속에서 어느 사이에 행동은 있지만 생각은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이다.

급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하나는 체념이라는 병이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함으로써 현대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한계점과 위기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제 정신으로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체념과 포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잊어 버리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처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을 바꾸면 내일과 미래가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된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은 흔히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래서 생각이 의심으로 발전하고 의심하는 쪽으로 계속 추리하게 된다. 이렇게 의심으로 이

어지는 생각 유형을 아담 타입이라고 한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아담과 같은 유형이다. 또 하나의 생각은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모습을 아브라함 타입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자기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통해 실패를 경험했지만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이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생각이다.

##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사고...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라 하늘이 주는 생각 받아 선한 생각으로 자신 임무 담당해야

리더가 이 생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현재보다 더욱 탁월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기적을 산출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생각이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리더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소극적인 생각 때문이다. 리더여, 지금 이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셋째,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진리를 깨우친 리더들의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리더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리더여, 생각을 개발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 생각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지혜의 샘이 되어 큰 결실로 보답해줄 것이다.

넷째,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라. 리더는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 종말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

고, 오늘을 살지만 끝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생각을 통해 하늘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대감을 갖고 생각을 바꿔라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고 생각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준비는 풍요와 행동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오늘은 누굴 만날까?" 라는 기대감으로 멋진 날을 준비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창조주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의 그릇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부족하거나 서툴다. 하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 현명한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 무슨 생각을 내 속에 채워야 할까?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리더가 속한 조직과 구성원들의 내일과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리더 앞에 놓인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축하기를 배우라. 여기서 자축이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법, 그 상황에 적응하는 노하우를 배우라는 말이다.

지혜로운 리더가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좋은 환경의 문이 열리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과정과 아픔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해결해야 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고난의 터

널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준비해서 자축하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 리더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복된 생각을 믿음의 손으로 부여잡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을 관리하라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리더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한다. 리더의 부정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리더의 긍정적인 생각은 조직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쳐 큰 성과와 결실을 맺는다.

리더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파도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살면 진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의 소유자가

다. 역사는 항상 이런 적극적인 생각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희망찬 내일과 미래가 보인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은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이다. 자기 안에 숨겨진 내면의 얼굴이다. 생각이 고우면 자기 얼굴도 고와지고, 생각이 튀들면 자기 얼굴도 튀들린다. 리더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해야 한다. 삶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하라. 덤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살이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리더가 되라. 모든 것을 긍정적 눈으로 바라보는 리더가 되라. 그때 비로소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이다.

리더는 하늘이 주는 생각을 받아 선한 생각으로 자신의 임무를 담당해 나가야 한다. 탁월한 리더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관리해서 밝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소서-다윗 묵상(7)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51:10-12).

사랑하는 주님!  
어찌 그리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진저리도 나지 않는지? 계속 같은 죄를 이리도 한 없이 반복하는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꺼떡거리고요, 조금만 내려가도 실망에 좌절에 날개 죽지가 축 처지고요. 제게 저 자신의 죄가 부추기는 대로 속아서 이리 저리 밀려 다니는 자신을 염치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활활 뿜어오르면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던 다윗마저 안일해져 그 어려울 땐 마음을 동이고 주님만 바라보더니,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 부하들은 전선에 다 내보내고 자신에게 너무 상 주어 남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을 거닐다 겨우 남의 아낙 목욕하는 게 보였을까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욕이 시키는 대로 감음도 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인줄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멈추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심도 다 잊고 고의로 악한 머리를 굴려 최전선에 저를 세워 위장 살인을 기막히게 해냅니다. 어찌 힘겨울 때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배불러지니 자기가 대장입니다.

성령님~ 다윗이 편해지니 악한 욕신의 생각이 불붙 거어 나와 그를 삼키는 것 보니 겁이 납니다. 반드시 다윗 같은 왕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원들을 이룬 때가 오면 나는 어찌 될까 아찔합니다. 조금 편해졌다 해서 안일에 빠져 행여 라도 순간이라도 주님 앞을 떠나 세상으로 향할지? 그래도 나만 선지자의 날카로운 죄의 질타에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윗의 겸손이 귀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풍요한 열매시기에 이를 때에 빠른 영 분별력, 영적감각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찾아서 쫓아 가며 설령 넘어져도 다윗처럼 당장 무릎 꿇고 회개토록 꼭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일스레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지성소의 불이 늘 환히길 갈망합니다. 포도나무인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밀려드는 죄를 번제단에서 다 태워 주시고 화목제로 향하시어 한없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heelee55@hanmail.net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신앙에 중도는 없다



여승훈 목사

동네에 전기불이 나가면 동네 전체가 어두워지고 동네 전체가 어두워지면 온갖 범죄로 말미암아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유대 땅에 혼란이 찾아온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리에 인간의 거짓된 교훈들로 가득 채웠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간의 거짓된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 결과로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갔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드러지는 예배를 우리는 일명 형식적인 예배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예배를 한

번 돌아보라. 유대 땅 백성들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현대 교회 안에도 너무나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어쩌면 중세 로마카톨릭 때를 연상시킬 정도인지도 모른다. 중세 로마카톨릭 시대에 예배를 집례 하던 신부들은 예배 시 라틴어의 원문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독본(Reading)에 근거하여 읽었으며,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 예배에 참여한 신도들은 설교 시간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일관하는 소위 "형식에 찬 예배였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John Owen)은 "이들의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과 이끄심, 그리고 임재하심이 상실된, 그야말로 교황정 뒷간 거름더미에서 주워온 성령부재의 예배이자, 사람들만 덩그러니 운집해있는 무의미한 예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세 로마카톨릭의 신부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따라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결과로 신부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갔고 회중들도 점점 타락해져 갔던 것이다. 그래서 중세 로마카톨릭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의 흥수 시대라 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세 로마카톨릭의 형식적인 예배가 재연되는 듯 한 현상을 보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의 흥수 시대가 왔다면 교회 예배는 분명히 영적인 광명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정 반대로 영적인 어두움이 여기저기서 드리워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청교도 신학자 찰스 브리지스가 말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근거해 보면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 말씀은 흥수처럼 많이 들려오는데 복음이 충분히 들려지는 소리를 듣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 부분에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영적인 빛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영적인 어

두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은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혼란한 기독교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고 온전히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현대 기독교에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선포하고 듣게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제 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그렇다면 그 종교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미성 남서부지방회 주최 2017 홀리리바이벌 성회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주최 2017 홀리리바이벌 성회에서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앞쪽 왼쪽에서 네번째가 강사로 나선 심원용 목사.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한국성결교단 총회장 신상범 목사

2017 홀리리바이벌 집회가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회장 최진호 목사) 주최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마28:19)'라는 주제로 유니온교회, 산성교회, 오렌지중앙교회에서 심원용 목사(삼광교회 담임, 사단법인 다니엘 선교회 이사장, 삼광복지재단 이사장)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열린 첫날 집회는 유니온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성회 준비위원장 권다윗 목사(사랑성결교회) 사회로 시작, 최재성 목사(LA지방회장, 남가주은혜교회)가 기도했으며 변국현 장로(지방회 장로부회장, 유니온교회)가 성경 봉독했다. '추수할 일꾼, 주님의 제자'(마 9:35-38)라는 제목으로 설교단에 오른 심원용 목사는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인들을 제자화하여 동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주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된다.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교인들이 함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 왜일까 생각해보니 나 자신부터 제자됨의 경험이 없어서였다"라며 "주님이 하라는 것을 믿

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이 하라는 것은 복음전파와 제자삼는 일이다. 제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와 동일한 제자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목사는 또한 "다음세대가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고 소망이 없어진다. 다음세대를 정착시키고 열어가려면 그들을 제자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12명을 훈련하셨으며 70인의 전도자가 세워졌다. 그리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자들을 남겨두고 가셨다. 12명을 제자 삼으면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것이다. 12명이 12명씩을 세울 때

144명이 세워질 것이다. 제자의 삶을 살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영향력 나타날 것"이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병호 목사(북부감찰장, 남가주성결교회)가 통성기도를 인도했고 이경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한편 이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상범 목사가 방문해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성회는 둘째 날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산성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셋째 날에는 오렌지중앙교회(담임 이경원 목사)에서 각각 성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현장목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주제 미 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2017 수양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가 10월 2일과 3일 뉴저지 에디 팜 수양관에서 2017 여름 수양회를 열었다. [사진 9면]

"현장목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목회 철학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수양회에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코네티컷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문 목사와 사모 등

33명이 참가했다. 개회 예배는 회장 박성원 목사의 사모로 시작돼 구자범 목사의 기도, 김남수 목사의 설교, 정익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저녁에는 총신 신대원 동문이며, 현재 예일대학교 조나단 에드워즈센터 연구원인 정부훈 박사가 "종교개혁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자녀심리치료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박랑규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부모와 관계가 관계모델로 형성" 한미특수교육센터 자녀심리치료 세미나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 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풀러턴 커뮤니티센터에서 가졌다. 이

동문 목사들은 밤늦도록 실패와 고난 등 목회의 아픔에 대해 마음을 열고 토론하며, 목회원리들을 다시 돌아보는 등 진솔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했다.

폐회예배는 이재철 목사 인도로, 기도 영광회 목사, 설교 신성능 목사, 축도 박희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내년 수양회는 수석 부회장이 이재철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모이기로 계획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날 강사는 박랑규 박사(한국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원장,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 겸임교수)가 나서 강의했다.

박랑규 박사는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 그들 안에 관계모델로 형성된다. 형성된 관계모델은 그들이 갖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게 된다"며, "예를 들면 체벌을 자주하는 부모한테서 자라난 자녀들은 갈등모델이 체벌이었기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칠시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가정환경이 따뜻해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게 된다"며 "자녀들이 부모와 즐거운 경험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고 자녀들에게 부모와 즐거운 경험을 심어주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 총영사관 주최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리셉션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이날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한복 패션쇼 모습

400명 참석...한국문화 소개 LA총영사관,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리셉션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행사가 LA 총영사관 주최로 3일 오후 6시 LA다운타운의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막내아들 랄프 안씨를 비롯한 독립 유공자와 애국선열 후손을 비롯한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과 미 주류 정치인,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등이 자리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행사에서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한복 패션쇼와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초청공연, 부대행사로 전통 의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각종 전통 차와 한과 시식 코너도 한국 문화원의 지원으로 열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소개됐다.

한편 이기철 총영사는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참사로 인한 한국인 피해 상황 파악차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어 황인상 부총영사가 대신 행사 호스트를 맡았다.

개천절 경축 본 행사에서는 기수단(재미한병전우회) 입장과 라스베이거스 총기 피해자를 추모 또한 황인상 부총영사의 환영사, 최석호 하원의원 등 주요 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2017년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에서 관계자들과 상을 받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년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 단체전 27팀, 개인전 32팀 참가

2017년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가 7일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주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후원으로 개최됐다.

금번 퀴즈대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 동포와 학생들에게 독도와 동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행사로 단체전 27팀(중등생+부모님), 개인전 32팀(중, 고생)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개인전 및 단체전 대상(1등), 우수상(2등), 장려상(3등)에 대해서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이기철 총영사) 명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기사제공: 미주한국학교연합회)



글로벌선진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 GVCS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개교 2년 만에 명문 국제학교로 부상

글로벌선진학교 GVCS 펜실베이니아 캠퍼스가 지난 2015년 펜실베이니아 주 챔피버스버그(Chambersburg)시에 세워졌다.

글로벌선진학교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는 잠정용사 자녀학교인 스코틀랜드 캠퍼스가 있던 곳으로 스코틀랜드 캠퍼스가 문을 닫은 지 6년 만에 글로벌선진학교가 들어서게 됐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인 남진석 목사는 "글로벌선진학교는 문명과 음성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특별히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는 저개발국가 및 비복음지역 국가들의 현지주민 학생들을 선발해 미래에 자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장학제도인 F.A.D(Faith Aim Dream)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

르키스탄, 중국, 베트남, 인도, 콜롬비아, 브라질, 루마니아 등에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 이사장은 "이들은 현지선교사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AA, A, B+급으로 평가돼 평가단계에 따라 항공료,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모든 것이 지원되는 AA급 장학생으로부터 학비와 기숙사비가 면제되는 A급, 학비와 기숙사비가 일부 면제되는 B+급 장학생으로 분류되어 지원 받고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해 선발됐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일반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도전과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GVCS는 현재 버지니아 주에 등록된 GVCS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장학재단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기

금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주교육국의 정식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본교는 185에이커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150여명의 학생들이 정진하는 국제학교로 부상했다.

한편 지난 10월1일 Scotland Campus Inc(총장 데이빗 뉴웰)와 특별 MOU를 체결했다. 현재 Scotland Campus Inc가 운영 중인 스포츠꿈나무 육성프로그램 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60여명이 본교에 편입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미 동부 지역의 각 도시 및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고등학생 스포츠 꿈나무들로서 농구, 야구선수들이다. 그들은 졸업 후 NBA와 MLB로 진출을 목표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남이사장은 "한국과는 달리 GVCS의 학생들은 운동부에 있어도 학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비록 시험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 운동부 학생들은 학점이 D이상이 돼야 한다. 적어도 C마이너스는 돼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3년 대안학교로 시작된 글로벌선진학교는 평범한 아이를 비범하게 만든다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운영해왔다. 반에서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GVCS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들이 졸업 후 진학하는 학교는 아이비리그와 런던대학을 비롯한 전 세계의 우수한 명문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고 전했다.

▲입학문의: (972)363-7384, kyungsoo@gemgem.org



# 동부교계 게시판



## 비블리컬신학교 한인동문회 체육대회

비블리컬신학교(BTS) 한인동문회 체육대회가 10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리지필드 파크(53-99 Scott Ct., McKeown Field)에서 열린다.

▲문의: (917)971-5761총무 권해택 목사, (917)882-5001서기 문영은 목사

## 퀸즈장로교회 2017년 건축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7년 건축 바자회가 14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본 교회 지하진교실과 파킹 랫에서 열린다. 품목은 예년과 같이 비빔밥, 우동, 빈대떡, 만두, 떡볶이, 오뎅, 돈가스, 영양밥, 김밥, 전류, 김치, 견과, 과일 생선, 김, 멸치, 음료수 등 음식과 뷰티용품 스킨케어, 중고 옷, 화분, 수공예품, 약세서리, 각종 잡화류 및 생활용품이다.

▲문의: (718)886-4040

##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 총동문회(회장 정기태 목사) 정기총회가 10월 16일(월) 오후 7시 플러싱 산수갑산II 식당에서 열린다.

▲문의: (917)733-7387

##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설립기념예배 및 부흥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담임 이상훈 목사)가 8일(주) 설립기념예배를 드리고 10월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 가을 부흥회를 갖는다. 강사는 황규식 목사(수지산성교회 담임).

▲문의: (516)333-1757

## 제 4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페이신학교가 주최하고 뉴욕기독교방송(KCBN)이 후원하는 제 4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가 10월 16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강사는 윤세웅 박사로 주제는 "의학적으로 본 장세기 홍수"다. 참석자는 예약을 바란다.

▲문의: (718)463-1700

# “EXPLICIT” 주제... 강사 샘리 목사 뉴욕교협 주최,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성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관하는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가 6일과 7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대회는 “EXPLICIT”이라는 주제로 강사는 샘리(미주사라의교회) 목사가 설교했다.

청소년센터 대표 황영송 목사는 “청소년할렐루야대회를 열게 해주신 교협과 청소년센터 스태프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장소를 제공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청소년센터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에서 DIMI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올 대회 준비를 총괄한 대회 사무총장 김준현 전도사(퀸즈장로교회)는 “예년과 달리 올 대회는 스피커를 로컬에서 초청한 것”이라며 “준비 팀을 구성해 샘리 전도사와 지난 2월부터 모임을 갖고 준비해왔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차세대 사역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이번 대회는 하나님을 막연

하게 생각했던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찬양은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담당했으며, 가면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몸으로 퍼포먼스를 벌이는 DIM(Divinity in Motion)팀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또 설교에 앞서서는 미국내 5만7천여 명의 성직 노예 상황에 빠진 여성들을 구하는 기구(Restore NYC)에서 상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들은 헌금을 통해 이들을 지원했다.

강단에 선 샘 리 목사는 분위기를 전환해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3명씩 인사하게 하고 티셔츠를 선물로 줬다.

샘 리 목사는 요한복음 8:31-47을 본문으로 “진실과 거짓: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올해 청소년센터에 1만3천 달러를 지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16회 정기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제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 16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지휘 양재원) 제 16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8일 저녁 6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동 합창단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문석호 목사 기도 후 시작된 1부는 “진리를 살아서” 주제 아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 날 인도하시네’, ‘찬양의 소리’ 등을 불렀으며 L.V.C 애버그린 콰이어가 찬조 출연했다.

2부는 “평화 주소서” 주제 아래 ‘우리 꿈꾸네’(Dona Nobis pacem)를 회중과 함께 불렀으며 ‘믿음의 기도’ 3곡, ‘너는 내 것이라’를 부르고 뿌리올림팀이 특별출연했다.

3부는 “자유를 외치라” 주제 아래 ‘예수님이 좋은길’, ‘빈손으로 세상 와서’, ‘국악찬양메들리’,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를 불렀다.

이날 베넬체임버앙상블이 협연하고 뉴욕어린이국악선교단도 출연했다.

이날 10년 근속자 박현숙 권사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동 합창단에 10년 이상 근속자는 24명이다. (유원정 기자)



루터 생가방문 후 일행들이 기념촬영 했다.

# “루터 생가방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뉴욕교협,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제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했다.

탐방에 참여한 부회계 장현숙 목사는 “종교개혁은 1200여 년 동안 중세 암흑기의 로마카톨릭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려 시작되었다. 개혁의 불길은 종교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이번 탐방은 개혁자들이 생명을 바쳐 성경으로 되돌아가고 했던 개혁현장을 찾아가는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장 목사는 또 ‘독일의 아이슬레벤은 종교개혁의 중심역할을 했던 고유한 기념물을 소유했던 장소다. 교협일행은 루터가 세례 받은 교회와 생가를 방문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회고하며 뜨거운 통성기도와 루터가 교황청의 소환을 받았을 때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송했다”고 전했다.

일행은 뉴욕출발 전 마지막 코스로 칼빈의 생가와 박물관을 탐방했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 “중요한 일 겸손하게 해왔다” ...다민족선교 가교역 퀸즈장로교회 중국교포부 설립10주년 감사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국교포부 설립 10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8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윤석현 집사 인도로 황보명옥 집사의 간증, 손오환 전도사의 기도, 이애령 집사의 성경봉독 후 연합찬양대가 찬양하고 김성국 목사가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흠어진 나그네, 복음을 전하네, 본향을 향하네”(벤전1:1, 4, 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중국교포들이 중요한 일을 겸손하게 헌신해왔다”며 “그 헌신 위에 다민족 선교를 세워 나갈 수 있었다. 지금쯤 물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며 “중국교포부

설립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고 말하고 지난 10년간 믿음으로 달려온 중국교포 교인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영상으로 지난 10년을 소개하고 찬양과 율동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포어린이, 교포청년의 찬양과 교포자매의 율동에 이어 중국어예배와 헤리티지콰이어가 찬양했으며 중국교포부 70여명이 찬양했다.

축도는 장영준 목사가 맡았다. 중국교포부는 2007년 장영준 원로목사가 중국교포인 황혜옥 전도사를 사역자로 임명해 시작됐으며 중국어회중 설립에 가교역할을 하면서 성장해 현재 50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중국교포부 설립10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장영준 원로목사부와 김성국 담임목사부부, 중국교포부 회중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수양회 참석자들이 폐회예배 후 기념촬영 했다. (기사 9면)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8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예)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일기도: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886-404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젯세미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01:30 수요일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 오전 05:30 금요일기도: 오후 08:00 한문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d4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00 금요일기도: 오후 08:00 새벽기도: 오전 0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영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미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기도: 오후 5:00 영일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ccp.org	<b>퀸즈한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 오전 8: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340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호주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1, 2, 3, 푸 스테리나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nrk@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9:47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나의 택한 그릇' 주제 제 37회 HYM청년연합집회, 설교 임재웅 목사

제37회 HYM청년연합집회가 '나의 택한 그릇'이란 주제로 7일과 8일 양일간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임재웅 목사(신촌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 9장 15-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제37회 HYM청년연합집회에서 강사목사와 스태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첫날 집회에서 임재웅 목사는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아서다.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서"라며 "오늘날 연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연합과 혼합을 혼동하기에 개신교가 무너지고 있다. 연합은 진리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지만 혼합은 진리와 상관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 말했다.

음을 가지며 사는 것, 둘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이야기한다.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게 된다. 고백이 포함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

유는 회개의 동기가 잘못돼서"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고백해야 한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드려 보자. 그리고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해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면제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 말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는 성령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성령이 내안에 계신 증거는 첫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 넷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다섯째 성령의 근심이 생기는 것, 여섯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 것, 일곱 번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는 죄를 지은 나 자신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는 자, 내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자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신뢰하면 저절로 맺히게 된다. 주님의 역사는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집회는 HYM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임재웅 목사의 말씀선포와 기도, 그리고 더글러스 김 대표의 결단의 기도인도로 이어졌으며 임재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토렌스선한목자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에서 임직받은자들이 김현수 담임목사와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안수집사 3명, 권사 10명 임직 토렌스선한목자교회 설립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토렌스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 설립 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8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본 교회 찬양팀(담임 김창준 목사의 찬양인도와 최선규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현수 목사가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단애 올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마14:13-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현수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며 "주님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우리필요 채우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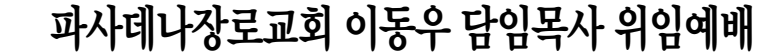
또한 "일꾼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위해 견딜 수없는 긍휼하심으로 보좌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며 "16주년 맞이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왔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기 바란다. 직분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능력 감당해야 한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쫓게시고 죽으시며 경멸한 기적으로 구원하신 것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한 것 감사하며 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임직식은 서약, 안수식, 임직패 및 선물증정으로 이어져 강규현 집사 등 10명이 권사, 김길훈 등 3명이 안수집사로 임직됐다. 김성욱 집사가 안수집사로 취임했다.

권면은 양호직 목사(미주풍성한교회)가, 이관영 집사가 안수집사 대표로, 강규현 권사가 권사 대표로 답사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의 교회발자취와 선교사와 임직자들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여 줬다. 이날 예배는 김현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다문화사회...새 협력모델 만들겠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이동우 담임목사 위임예배



파사데나장로교회 이동우 담임목사 위임예배에서 이동우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이동우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8일 오후 3시30분에 열렸다.

이동우 목사는 "파사데나장로교회는 영어회중과 한국어 회중 그리고 스페니시 회중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수한 교회로 다문화사역을 추구하고 있다"며 "각 언어별이 아닌 모든 회중이 한 교회를 이루고 당회 역시 하나로 모이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행정상 하나인 교회임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그룹이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중에서 각각 개성과 문화장점 공유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교회다. 이중에 일부로서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며 "LA지역은 다문화 사회인데 많은 한인교회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특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파사데나장로교회가 다문화사회와 교회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구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프라이드 윌슨 장로(센가브리엘노회)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위임예배는 오스발도 가르시아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와 유의영 장

로(선한목자장로교회)가 환영의 인사와 예배로의 부름을, 웬디김 장로(파사데나장로교회)와 다니엘 장 장로(파사데나장로교회)가 말씀 봉독 했으며 마크홍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가 '말씀에 의지하여'(사 48:11-13, 딤후1:6-10, 눅5: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케일라 김이 특송했다.

이어 열린 위임식은 일레인 워커 장로(클레어몬트장로교회)와 김희원 장로(파사데나장로교회)가 세례를 집행했으며 프라이드 윌슨 장로가 이동우 담임목사에게 위임서약을, 한성수 장로(파사데나 장로교회)가 회중들을 향해 서약했다.

이어 웬디 타치마 목사와 마크홍 목사가 이 목사의 위임의 기도와 안수한 뒤 프레드 윌슨 장로가 위임선언을 했다.

웬디 타치마 목사가 노회의 권면과 환영의 말씀을 전했다며 조셉 강 목사(살가브리엘노회)와 커런 사피오 목사(클레어몬트장로교회)가 목사를 향한 권면을, 앤 오글리 스비 에드워드 목사와 유의영 장로가 교회를 향한 권면을 했다.

이날 예배는 이동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미주장로회신학대 기독교인문학 제6차 목요포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인문학 제 6차 목요 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ristianity)'란 주제로 10월 26일(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켄안 선교사. ▲문의: dspark@pts.edu 박동식 교수

### 나성영락교회 통일북한 선교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통일북한 선교세미나를 14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갖는다. 수강료는 10달러(교재, 점심포함). ▲문의: (213)200-6383 임학순 집사

### 김흥전 창작찬송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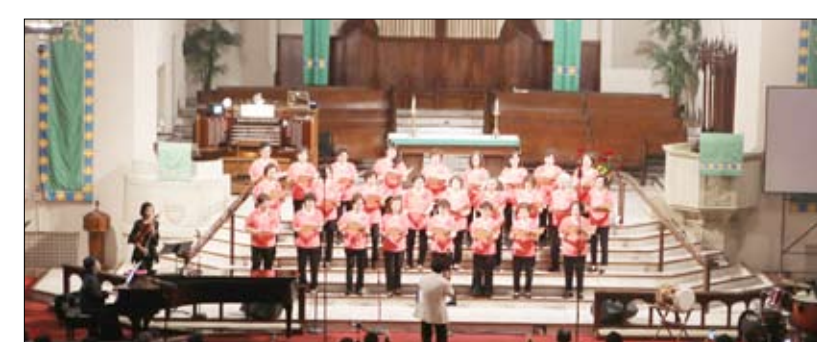
김흥전 창작찬송음악회가 '복있는 자'라는 주제로 14일(토) 오후 6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381-2202

### 제 1회 미래과학기술포럼

한국과학기술협회(KSTC)가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주최하는 제 1회 미래과학기술포럼이 16일(월) 오전 10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플래스 호텔(745 S Oxford Ave, LA)에서 열린다. 과학자, 엔지니어, 목회자, 선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번 포럼은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하게 된다. ▲문의: (714)823-3669

### 선한목자교회 가을 부흥성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가을부흥회를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양준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 ▲문의: (909)591-6500



제5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에서 한아름여성합창팀이 찬양하고 있다

## 원정하 인도 선교사 후원위해 제 5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

한아름합창단(단장 김옥선 뮤지컬 디렉터 이경호 목사) 제 5회 연주회가 8일 오후 7시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원정하 선교사(인도) 후원을 위해 열린 연주회는 한아름여성합창단이 '우리주의 성령이', '산', '즐거운 웃음'을 불렀으며, 한아름선교 합창단이 '여리고 성', '나 천국 가리라', '여호와 만군의 주여'를, 연합합창단이 '주의 사랑 안에서', '영광의 주님', '승전가'를 불렀다.

그리고 한아름여성합창단원인 소프라노 김은혜가 'You Raise me up'을 불렀으며 본 합창단원 김수

지, 김줄리 씨가 바디워십을, 이해경 사모가 올겐 연주를, 조원직 목사가 색소폰 연주를 했다. 이날 연주회는 윤태환 목사(한아름선교합창단 고문)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연주회가 열리기전 한아름 여성합창단 김옥선 단장과 한아름 선교합창단 최재홍 단장이 인사말을 전했다며, 창단 때부터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기숙 사장(북창동순주부)에게 감사패를, 이화일 권사에게 명예대장 추대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481-2779, Fax: (714)481-3761 1645 Beverly Blvd., Fullerton, CA 92626 facebook.com/tscsca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W.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말씀-금: 오전 5:30 토일학교: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949)854-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Fullerton, CA 92626 facebook.com/tscsca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청소년예배: 오후 1:30 영아예배 (장소: KDC, 링컨대통령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facebook.com/lscgca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9: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진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Tel: (949)854-4010 / E-mail: bdhbc@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성경대명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3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E), 사해(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주일학교: 오전 9:3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5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C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 www.socalsunshine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아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영아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영아예배: 오후 10:00 주일 영아예배: 오후 10:00 주일 영아예배: 오후 10: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의 창 (88)

## 케노시스(kenosis) 형성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미드웨스턴침례신대원 목회상담학박사과정 신설

#### 2018년 봄학기부터, 총 30학점(6과목) 이수

“교회를 위하여”란 핵심 가치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온 미드웨스턴침례신대학원(총장 )이 2018년 봄 학기부터 목회상담학박사(D.Min. in Care & Counseling)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

이에 앞서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2017년 가을학기에 선교목회학(D.Min. in Missions)과 설교목회학(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박사과정을 개설했고,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을 내년 봄에 신설함으로써 다변화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은 기독교 상담모델의 이론적, 실제적 적용을 위해 전문인 상담가 양육뿐만 아니라 고급 상담과정 세미나를 통해 실제적인 상담 방법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의 학점은 각각 총 30학점(6과목)으로 공통필수 세 과목과 전공선택 세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전공 과목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가의 정체성”, “결혼과 가족 치료”, “집단상담”, “상담사 슈퍼비전과 상담 센터의 운영전략”, “중독 이론과 치유상담”, “다문화 상담”, “목회와 전인적 회복상담” 등의 과목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고려대학교 심리상담학 명예교수로, 지난 35년간 수많은 전문상담가와 목회상담가를 길러낸 한성열 교수가 지도하게 돼 본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한국 및 한인 사회는 정치적, 세대적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경쟁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개인적, 가정적 병리현상과 집단 이기주의로 잠정된 현실 가운데, 깊은 소외와 불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으로의 정체성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목회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이며 전인적인 돌봄을 목회에 전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담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본 과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드웨스턴은 남침례교단 신학대학원으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모두 정식 인가되었다.

현재 한국부는 530여명으로 북미 최대 규모이며, 실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 나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나 최세롬 사모(이메일: lchoi@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턴침례신대원)

### 5. 케노시스적 선교

선교는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자기 소모이어야 한다. 선교는 자기를 높이는 명성이 아니다. 선교에서 자기 비움은 시작부터 끝이 되어야 한다. 선교는 현자인이 흥하고 선교사는 쇠하는 일이다. 선교는 무대 위에 현자인을 세우고 자신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다. 특히 1세대의 선교는 당대 금자탑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등반기가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움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비우는 자는 채우심을 경험한다. 내려놓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요와 채우심을 결코 알 수 없다. 케노시스(kenosis)의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되었다.

### 맺음 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니체(Nietzsche)는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초인 사상(Übermensch)을 언급했다. 이는 “낙타 같은 섬김이요, 사자 같은 용맹함이요, 어린이 같은 단순함”이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낙타 같은 섬김이 있는가? 악과 불의를 향한 사자 같은 용맹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는 당대의 지성인으로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의 언급은 간디와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굳이 외식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과 우리 자신의 행복 그리고 무한한 열매를 맺기 위해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은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케노시스(Kenosis) 영성이란 빠기 인생이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또 비우면 영혼이 맑아지게 된다. 그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내재성이 충만하게 되고 얼굴은 주님의 영광스런 광채를 드러낼 것이다.

song007@hanmail.ne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산상수훈의 첫 문장이다. 이는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비움의 철학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뜻대로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는 이 예수를 배우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본다. 그 많은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현대 우리는 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가? 케노시스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러운 물이 담긴 컵에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소용이 없다. 흔탁하며 흘러

제였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비하(卑下)는 승귀(昇貴)를 가져왔다(빌 2:9-1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시야이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비움으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 2. 비움에 대한 일반 원리

공간(空間)이라는 단어의 한자만 보아도 ‘비움’이 들어있다. 리얼리티 한 표현을 시도하는 미니멀리즘을 토대로 한 인테리어는 더 작게, 더 간결하게를 모토로 하여 비움으로써 여백의미를 보여주는 동양의 미

우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사회와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저너노움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바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 한적함, 단순함, 소박함, 겸손함, 천진함, 동심, 비움, 버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다.

인간이 번잡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소유와 존재의 삶을 혼동하게 된다. 결국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채움을 향한 목적지향적인 인생살이는 피곤하고 허망하다. 중국의 철인 장자(莊子)는 허실생백(虛室生白)을 언급했다.

### 케노시스(Kenosis)란 헬라어로서 ‘비움’을 의미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은 케노시스 그 자체였다.

#### 우리 심령이 비워있지 않는 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남칠 뿐이다. 나란 한 사람의 심령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취지고 있는가?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본질에서 이탈하면 그릇된 결과를 유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과업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계신다. 케노시스 영성, 이것이야말로 목회와 선교의 시발점이다.

### 1. 케노시스(Kenosis)의 의미

케노시스 사상은 성육신(成肉身) 이론의 핵심이다. 케노시스(Kenosis)란 ‘비움, 소모’를 의미하는 헬라어이다. ‘비움’이란 헬라어 케노우(κενω)에서 나온 말인데 ‘비우다’ ‘힘을 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케노시스(kenosis)란 주 예수님의 ‘신성 포기’, ‘자기 비움’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다. 케노시스의 원형은 하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빌2:7)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no reputation, himself nothing)’ 등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언급했다.

자기를 비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마침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막10:45). 예수님의 비움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

학도도 일맥상통한다. 단순함과 간결함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쾌적함을 제공한다. 속이 빈 대나무피리와 바이올린은 공명(共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릇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동시에 빈 그릇이어야 한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린 빈 그릇, 베드로의 빈 배, 가나 혼인잔치의 빈 항아리의 공통점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다. 그러나 가득찬 그릇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채웠을 때보다 비웠을 때가 더 아름답다. 뻥뻥한 대도시를 벗어나 하늘과 땅이 맛 닿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빈 공간으로 주행할 때를 상상해보라.

### 3. 비움이 없는 사람들

현대병은 한마디로 가득 채움에서 시작된다. 과욕, 과식, 과로가 대표적이다. 욕심이 일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더 높고, 더 많이, 더 크게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활활산 같은 욕망의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곳에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없다.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구슬땀을 흘리며 달려가지만 정작 신기루가 되고 만다.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이 이를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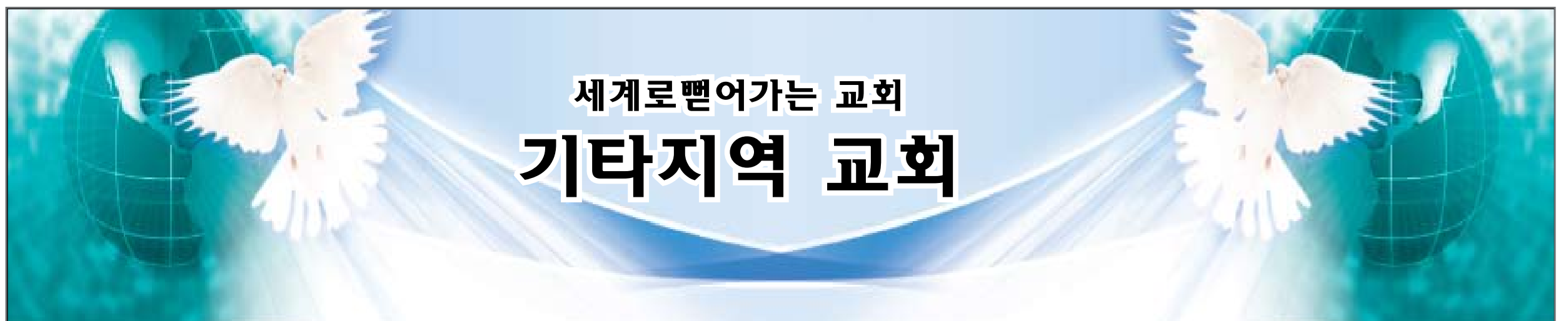
텅 빈 방에 햇빛이 밝게 비치듯 마음을 비우면 밝음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뜻이다.

### 4. 간디 눈에 비친 기독교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판판이기 때문이다(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으로 즐긴다.”

이상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가 한 말이다. 그의 따듯한 충고가 오늘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외침은 오늘 날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변영신학의 세속 논리가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요,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요, 희생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쫓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이 가신 길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동네북처럼 언어맞으며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2:22)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410)461-6823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http://www.bethelchurch.org/	<b>벨앨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동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동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b>안다루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새벽예배: 오전 8: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bc.com	<b>앵커리지벨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b>엘파소열린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새벽(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킬린노루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jo.org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보사방문

‘소리글 한국어 교재’ 펴낸 박덕주 권사

소리글 한국어 교재를 펴낸 박덕주 권사가 27일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2세들의 한글 교육에 앞장서며 30여년을 달려온 박 권사는 그동안 자신이 사용했던 자료들을 모아 한글권의 책으로 묶었다고 선보이며 ‘소박한 책자’라고 소개했다.



1970년 남편 박종갑 장로와 결혼함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박덕주 권사. 이곳에서 47년을 살아오며 오직 2세들을 위한 한글 교육에 힘써왔다.

이화여고와 이화여대 사범대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박 권사는 미국으로 이주해 17년 동안 자신의 세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데 올인 했다. 자신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자 이제 박 권사의 눈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인 2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교회 한글학교와 글렌데일 지역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당시(1987년)만 해도 아이들을 가르칠 한글 교재가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한류바람도 없던 때다. 기초반 어린이를 맡았던 박 권사는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써야 했다. 낱장으로 만들어 쓰던 교재들이 하나 둘 모아졌고 현지교사에서 은퇴할 즈음엔 한글권의 책이 될 만큼 소중한 자료로 남았다.

박 권사가 2010년 은퇴한 후에는 남가주 한국학원 교과서 개정위원, 교과서 감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재의 대한 열정이 더해져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자료들을 재점검해가며 한글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부모들에게서 흔히 듣게 되는 안타까운 하소연처럼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리글자, 아침나절이면 깨우친다는 과학적이고 쉬운 한글을 어떻게 하면 영어권

의 자녀들에게 빠르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박 권사의 숙제였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3남매가 학교에서 배우는 Phonics를 접하면서 문득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떠올랐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는 14자음의 글자 모양과 사운드를 연결하는 자음 코드를 만들었고 모음 10자는 두 팔로 Right, Left, Up, Down, Center, Side 방향을 바꾸어 ‘One Two, One Two 하면서 모음 코드와 함께 울동을 가르쳤다고 한다. 거기에 자, 모음에 필요한 그림과 낱말들을 찾아 붙이면서 가능한 체계적이고 쉽게 배우도록 정리해 나갔다.

이렇게 구성된 이 교재는 세 파트로 구성됐다. 파트 A는 한글의 기초와 기본적인 대화를 다루고 모든 지시문은 영어로 수록했다. 파트 B는 누구나 알

아야 되는 주제를 택하여 연습문제와 함께 넣었고 지시문은 한글과 영어로 넣었다. 그리고 파트 C로 가면 쉬운 문법과 문장 쓰기, 짧은 동화와 노래 부르기 등을 삽입했고 지시문은 한글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1과(11-12쪽)는 파트 A의 개요이고 Basic Songs(87쪽)은 파트 B의 개요이며 2과 ~ 9과는 각 과의 마지막 쪽에 Reading Chart가 포함돼 있다.

현직 한글교사로, 감수위원으로 지난 30년을 한글교육에 몸담았던 박 권사는 “한국말을 하지도 못 읽고 못 쓰던 애들이 두 달 정도만 되면 읽고 쓰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종종 부모들이 빠른 시일에 자녀들이 한글을 깨우쳐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땐 한없이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그이전 또 다른 염려도 있다. 앞으로도 한글 교육은 더 절실한데 2세대 부모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 교육이 힘든 시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란다.

마지막으로 박 권사는 “부족한 책이지만 곳곳에 흠어져 사는 영어권의 코리아 디아스포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교재로 쓰여지면 좋겠다”고 소박한 바람을 남겼다. 이 교재가 필요한 분은 (323)256-7365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기도/칼럼

고난은 제3의 성례



박현승 목사 (캐나다서부장로교회)

임현수 목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통해 복한 역류생활에 대하여 간증을 하였다. 2년6개월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었음을 고백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매일 예배를 드림, 성경묵상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 만남...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제목처럼 임 목사는 고난을 통해 성례전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 그에게 고난은 세례, 성찬과 함께 제3의 성례가 되었다. 고난은 성스러운 은총의 복이었다. 예수님이 겪은 고난도 성례였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성례전이 다 들어 있다. 세례의 물, 성찬의 삶과 피가 있다. 죄 사함, 거듭남, 생명, 승리, 사랑, 천국이 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신비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

10월이다. 감사의 계절이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감사를 배우자. 이런 저런 고통과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은 제 3의 성례”라는 말을 기억하고 오히려 거룩한 감사를 드리자. 진정한 감사는 고난을 통해 나온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감사를 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감사를 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했다.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를 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며 잔을 부으며 감사를 했다. 모두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했다.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니다. 유익한 감사의 도구일 뿐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119:71).

이메일: bible66@gmail.com

새책소개

“주님 오실 때까지”

임지석 목사



목회와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찾고 기다리는 심정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본 칼럼집을 접하는 이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대하며 살아가 수 있기를 기도 한다”고 출판의 목적도 피력했다.

임지석 목사는 일간지 코리아 타운데일리지와 한국일보에 칼럼을 게재해오고 있으며 ‘울인의 사랑’, ‘십자가의 비밀’, ‘하늘

임지석 목사(나성세계로교회 담임)의 다섯 번째 칼럼집 ‘주님 오실 때까지’(기독교문서선교회)가 출간됐다.

저자는 “주님이 임하셨던 십자가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처

입은 사역자는 자신의 상처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하나님 말씀 접목해 주님 사랑과 은혜, 치유의 맛 나뉨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수록했다 (중략 본문 ‘상처 입은 치유자’ 중에서).

총 105편의 칼럼으로 구성된 본 책자는 각 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 읽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맛을 나누며 이민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고 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주님이 택하신 한 사람의 종으로 이민

에 쓰는 편지’, ‘한 길을 가려무나’ 등의 저서가 있다.

책 구입 문의는 (213)219-9229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기독교 개종 이란무슬림 ‘난민’ 지위 얻어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 원고승소 판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인 E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환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E씨에 대한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했다. 그는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박해를 피하고자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박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김 판사는 ‘샤리아율법이 이슬람에서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배교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란 헌법은 무슬림 시민의 개종 또는 신앙의 공식적인 포기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 이란 정부는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있는데, 종교 탄압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회질서 혼란, 정부전복 음모, 반정부활동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방문해 한국인 친구의 권유로 송파구의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다 2015년에는 아버지까지 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E씨는 이런 사실을 이란 현지의 고모에게 알렸고, 개종 사실이 알려진 후 이란 가족과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고 한다. 이에 E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2016년 5월 난민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E씨는 같은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모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때문에 E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얻은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3)

8. 한인교회와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4)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 우선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확장적 혹은 완성적 이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 나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개념들이 학교교육의 컨텍스트에서 교실의 수업, 더 정확히 말해서는 교실에서의 수업 “내용”과 직결된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다루려 하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확장적 개념은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 성경적 통합교육의 완성적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 통합교육의 의미를 교회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개념을 분명하게 다룸으로써 성경적 통합교육의 완

찰을 성 없이 대한다거나, 교만한 자세로 가르침에 임한다거나 한다면, 이는 성경적 통합 교육이라 부르기에 매우 낮 뜨거운 일이 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성적인 성경적 통합 교육이란 그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태도 역시 반드시 성경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 완성적 의미의 성경적 통합 교육이 되기 위해서, 그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욱 핵심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교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즉 교사가 교실 안뿐만 아니라 교실 밖 모습에서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진정한 의미, 완성적 의미의 진정한 성경적 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모든 분야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그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되는 그러한 교육인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경적 통합교육의 교회 내 실제화 및 구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바로 이를 담당할 교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교육하는 일 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모습이 바람직한 목회자상과 닮아 있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 여기실 분들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실은 교회 내 성경적 통합교육의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 또한 더욱 성숙해지고 그 격에 맞는 도덕성과 인격을 도야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교회 내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에 중요한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목회자들의 인격이 문제시 되며 그 행위의 격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는 더더

성경적 통합교육의 교사 모습은 바람직한 목회자상과 닮아 있어야 성경적 세계관이 삶으로 이어져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도록 교육

성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오히려 더욱 중요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의 확장적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진정한 의미의 완성적 의미의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기독교 학교들에서 모든 과목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다루고 가르치는 “내용적” 부분뿐 아니라, 교사의 가르치는 방법, 교사의 교육태도, 그리고 교사의 일상적 삶까지도, 즉 내용 외적 부분들에서까지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추어 합당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는 인식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의 내용과 성경적이면서, 실제로 그 가르침의 방법과 가르치는 자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비성경적이라면 이는 결코 진정한 의미, 완성적 의미의 성경적 통합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히 보아도 언행불일치가 되는 것이며,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해도, 올바른 교육의 모습으로 여겨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내용적으로 잘 세련된 성경적 통합을 이루었으나,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의 이해능력과 학습능력을 배려하지 않은 채, 교사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육 방법만을 추구한다면,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제아무리 훌륭하게 내용적으로 성경적 통합을 이루었다고 해도 이는 결코 성경적 통합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삶과 신앙도 통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통합교육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개념 설명을 대하면서 “교사들한테 너무 까다롭고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여기실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이 목회자들도 아닌데, 그들에게 너무 많은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그 완성적 모습의 정의상, 참으로 그러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참으로 사명감과 소명이 있는 교사가 핵심이 되는 그러한 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내용적 지식이 풍부하며 있으며 동시에 이를 성경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 지식이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구사하되 학생들의 상황들을 배려하는 성경적 방법들을 분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헌신되고 성숙하며,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소명이 있으며 이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이러한 교사가 반드시 요구

속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바 성경적 통합교육의 확장적 개념을 통한 그 완성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너무 완벽주의적이고 어렵고 까다로운 그래서 시도하기에 부담부터 드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질 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교육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은 탁상공론이 아니며, 성경은 적당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며, 그 궁극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의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고 꾸준히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며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러한 자기인식, 즉 성경적 세계관이 삶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인생이 변화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위한 교회의 컨텍스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삼하19:40-41)

오늘은 아주 선하게 쓰임 받는 유다지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하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윗왕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때 유다지파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를 질투하는 남은 이스

라엘 사람들이 다윗왕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유다지파는 항상 앞서가는 지파였습니다(창49:9-10). 항상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파로 그의 혈통을 따라 나신 예수님이 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하는 성도가 선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화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삼하19:42-43)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 늘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지파가 강하게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유다지파가 다윗을 섬길 때 무슨 뇌물을 먹거나 무슨 특혜를 받은 것이 없이 항상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유다 사람의 말이 더욱 강경했

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받을 수 있고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문제를 해결되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 유다사람들은 왕에게 함하여(삼하20:1-2)

유다지파는 하나님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놓아도 지금 다윗왕이 유다지파를 통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 많은 것에 흔들리고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늘 담대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지

파에 불만을 품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역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쫓습니다. 그러나 유다지파는 다윗왕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이룹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신의 의리를 지키고 정절을 지킬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삼하20:3-5)

본문은 다윗왕 인생말년의 상황입니다. 다윗왕의 시대는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왕에게는 또 한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세바를 처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아주 신속한 작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이 생각하고 지시한 그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잘못되고 실패한 작전이 돼

버리고 오히려 군대장군 아마사만 괴살했습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뒤떨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사가 미적거리는데 세바의 반역은 더 커지고 오히려 요압의 반감을 산 아마사가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삼하20:6-7)

원래 암살품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 아마사는 반드시 처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군대장군을 세웠습니다. 다윗왕은 평소에도 요압을 싫어했습니다. 용맹한 장군임에는 틀림없지만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너무 난폭해서 이번 기회에 재가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일을 잘 못하면 다시 요압을 세웠어야 했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군대장

군으로 세우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더욱 일이 꼬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토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삼하20:8-10)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군사작전을 지시하다가 결국 아마사만 잃고 요압이 더욱 난폭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문의 교훈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용맹스런 장군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왕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나중에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가져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함

니다. 조금도 누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결국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는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삽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강남중앙감리교회</b></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p>	<p><b>군포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82)2-2643-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p>					
<p><b>금란교회</b></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lan.org Tel. (82)2-46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p> <p>담임목사: 장항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p> <p>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병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68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이덴교회</b></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철야를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Tel. (02)262-2646-3181~3, (0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16-808)</p>	<p><b>성실교회</b></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998-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b>성일교회</b></p> <p>담임목사: 김정곤</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삼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b>수정교회</b></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b>승동교회</b></p>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p>	<p><b>시온소교회</b></p> <p>담임목사: 김성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신갈동 419-2</p>	<p><b>신길교회</b></p> <p>담임목사: 이기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p> <p>담임목사: 송용결</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2, 291(삼일동) www.shincheon.org</p>	<p><b>신촌교회</b></p> <p>담임목사: 박노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신촌동 49-45 www.shinchn.org</p>	<p><b>안암 제일교회</b></p> <p>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82)2-926-4508 서울시 용마루구 안암동 130-501 www.anamjil.or.kr</p>
<p><b>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로 415 www.yangkg.org</p>	<p><b>왕성교회</b></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p> <p>담임목사: 신일권</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오후 9:30 금요기도회: 오후 9:30</p> <p>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b>주안교회</b></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b>창대교회</b></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p> <p>담임목사: 주서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b>충신교회</b></p> <p>담임목사: 이진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p>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북미주 성도들의



# 통곡 기도 선언문

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문안드리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곡기도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 첫째,

지금은 북미주 및 해외의 모든 크리스천 동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기도 할 때입니다.  
벼랑 끝 위기에 서 있는 한국 민족을 구하는 일은 정치, 경제, 군사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렘33:3).

## 둘째,

지금은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호6:1).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가난은 이겨냈으나  
비로소 누리게 된 풍요는 이겨내지 못하고 죄와 교만에 빠졌습니다.  
풍요가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성을 무장해제 하였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엘2:12).

## 셋째,

지금 이 위기가 오히려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복음통일의 계기가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투는 물뿔들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니 우리를 발하여 적군을 멸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평양의 3대 우상정권을 멸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쟁과 피흘림 없이  
저 악한 북한의 독재를 멸하시며 통일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왕하6:18).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 넷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민족과 후손과 교회의 미래가 걸린 이 위기에 성도들 말고  
누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리겠습니까?!  
지금 잠잠하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들의 존재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에4:14)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1. 전쟁의 비극없이 북핵이 소멸되고 평양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2.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하성도들과 동족들이 해방되게 하소서
3.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 남북한의 복음통일을 돕게 하소서
4.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소서
5. 한국과 해외성도들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해외 모든 성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100일간 작정하고 통곡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번 모국을 향해 혼자,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독교 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무릎에 달렸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 <기도안내>

100일 동안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기도제목을 다음의 웹사이트 주소에 올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와 화면에 크게 뜨는 100일간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 웹사이트 주소 <http://kccnk.org>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하소서!! (대하7:14)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북미주 100일 통곡기도 일자:  
2017년 10월 15일 - 2018년 1월 22일

그날까지 선교연합 USA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김영길 목사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